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閔) 영감은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하고 총명하며, 말을 잘하였다. ① 특히 옛사람의 기이한 절개나 거룩한 발자취를 흠모하여 이따금 의기가 북받쳐서 흥분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한숨 쉬며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중략)

손님이 또 물었다.
“영감님은 신선도 보았소?”
“보았지.”
“신선은 어디에 있소?”

“② 집이 가난한 자가 바로 신선이라고. 부자들은 늘 속세를 그리워 하는데, 가난한 자는 언제나 속세를 싫어하니, 속세를 싫어하는 게 신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영감님은 나이 많은 사람도 보았겠구려?”

“보았지. 내가 오늘 아침 숲 속에 들어갔더니, 두꺼비와 토끼가 제각기 나이가 많다고 다투더군. 토끼가 두꺼비더러, ‘내가 팽조와 동갑이니까, 너 같은 자야말로 후생(後生)’이다.’

하고 말하니까, 두꺼비가 머리를 숙이고 훌쩍훌쩍 울었다. 토끼가 깜짝 놀라서,

‘왜 그리 슬퍼하냐?’

물었더니, 두꺼비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저 동쪽 이웃집 어린아이와 동갑인데, 그 아이는 다섯 살 때에 벌써 글을 읽을 줄 알았단다. 그는 아득한 옛날 천황씨(天皇帝) 때에 태어나서 인년(寅年) 역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왕(王)과 제(帝)를 거쳤으며, 주(周)나라에 이르러 왕통이 끊어지자 책력(冊曆)** 하나를 이루었지. 진(秦)나라 때에 윤달이 들었고, 한(漢) 당(唐)을 거쳐 아침엔 송(宋)나라가 되었다가 저녁엔 명(明)나라가 되었지. 모든 사변을 겪으면서 기쁜 일, 놀라운 일, 죽은 이를 슬퍼하는 일, 가는 이를 보내는 일 등으로 지루한 세월을 보내다가 오늘에 이른 것이야. 그런데도 오히려 귀와 눈이 밝아지고, 이와 털이 나날이 자란단 말이야. 저 아이처럼 나이 많게 살았던 자는 없을 거야. 그런데 팽조는 겨우 팔백 살을 살다가 일찍 사라졌단니, 그는 세상을 겪은 것도 많지 못하고, 일을 경험한 것도 오래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슬퍼하는 거지.’

결국 토끼가 두 번 절하고 뒷걸음질치면서,

‘네가 내 할아버지뻘이다.’

합이다. ③ 이로써 본다면 글 많이 읽은 자가 가장 목숨이 긴 거라우.”

“그럼 영감님은 가장 훌륭한 맛도 보았겠구려?”

“보았지. ④ 하현달이 되어서 썰물이 물러나면, 바닷가의 흙을 평평하게 해서 염전을 만들거든. 그 갯벌을 구워서 성긴 것으로는 수정염을 만들고, 고운 것으로는 소금을 만들지. 온갖 맛을 조화시키면서, 소금 없이 어찌 맛을 내겠소?”

그러자 모두들 말하였다.

“좋소. 그러나 불사약은 영감님도 결코 못 보았겠소?”

민 영감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거야말로 내가 아침저녁으로 늘 먹는 것인데, 어찌 모르겠소? 큰 골짜기 굽은 소나무에 달콤한 이슬이 떨어져 땅속으로 스며든 지 천 년만에 복령(茯苓)이 되지. 인삼 가운데는 신라의 토산품이 으뜸인데, 단정한 모양 붉은 빛에 사지가 갖추어진 데다, 쌍갈래로 땀은 머리는 아이처럼 생겼지. 구기자(枸杞)가 천 년 되면 사람을 보고 짓는단다. 내가 일찍이 이 세 가지 약을 먹고는 백 일이나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숨결이 가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 이웃집 할미가 와서 보고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네 병은 굶주렸기 때문에 생겼지. 옛날에 신농씨(神農氏)가 온갖 풀을 다 맛보고 비로소 오곡(五穀)을 뿌렸으니, 병을 다스리려면 약을 쓰고 굶주림을 고치려면 밥을 먹어야 한다네. 이 병은 오곡이 아니면

고치기 어렵겠네.’

나는 그제야 쌀로 밥을 지어먹고는 죽기를 면했다우. ⑤ 불사약치고 밥보다 나은 게 없는 셈이지. 그래서 나는 아침에 한 그릇, 저녁에 또 한 그릇 먹고, 이제 벌써 일흔이 넘었다우.”

(중략)

어떤 사람이,

“해서 지방에 황충(蝗蟲)***이 생겨서, 관청에서 백성들더러 잡으라고 감독한답디다.”

하고 말하자, 민 영감이 물었다.

“황충을 잡아서 무엇 한다우?”

“이 벌레는 누에보다도 작은데, 알록달록한 빛에 털이 돋혔지요. 이 놈이 날면 명(螟)이 되고, 붙으면 모(蠹)가 되어서 우리 곡식을 해치는데 거의 전멸시키지요. 그래서 잡아다가 땅속에 묻는답디다.”

민 영감이 말했다.

“이따위 조그만 벌레를 가지고 걱정할 게 무어람. ⑥ 내 보기에 종로 네거리엔 한길 가득히 오가는 것들이 모두 황충일 뿐이야. 키는 모두 일곱 자가 넘고, 머리는 검은 데다 눈은 빛나지. 입은 주먹이 드나들 만큼 큰 데다 무슨 소린지 지껄여 대고, 구부정한 허리에 발굽이 서로 달고 궁둥이가 잇달아 있지. 이놈들보다 더 농사를 해치고 곡식을 짓밟는 놈들이 없단다. 내가 그놈들을 잡고 싶는데, 큰 바가지가 없는 게 한스럽구려.”

마치 이런 벌레가 참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 박지원, 민옹전(閔翁傳) -

* 후생(後生): 뒤에 태어난 사람.

** 책력(冊曆): 일 년 동안의 월일, 절기, 특별한 기상 변동 따위를 적은 책.

*** 황충(蝗蟲): 풀무치. 메뚜기과의 곤충.

01. 위 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 ② 대화를 통해서 극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③ 인물의 내면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 ④ 여러 개의 삽화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⑤ 간결한 문체로 사건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02. 위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 영감은 학식이 풍부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민 영감은 신선이나 불사약이 헛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 ③ 손님들은 당시 정치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민 영감은 당시 현실이 옛사람의 도(道)에서 멀어졌다고 보고 있다.
- ⑤ 손님들의 질문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A]

03. [A]의 내용에 착안해서 도서 광고 문안을 작성해 보았다. 민 영감이 말하고자 한 의도를 가장 잘 살린 것은?

- ① 어린이를 위한 『중국어 오천 년』, 초등학교 어린이 독자를 위해서 쉽게 풀어썼습니다.
- ② 생각을 키우는 『중국어 오천 년』, 오천 년의 경험과 지혜를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 ③ 시대 구분이 새로운 『중국어 오천 년』, 고대사와 중세사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했습니다.
- ④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오천 년』, 한국인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서술했습니다.
- ⑤ 한 권에 담은 『중국어 오천 년』, 선사 시대부터 명나라까지 시대별 주요 사항을 간명하게 요약했습니다.

04. <보기>는 가상해서 쓴 글쓴이의 회고록이다. 위 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측면 공격'이나 '역습'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보 기>—

돌아보건대 민 영감의 이야기는 참으로 신나고도 기이하고, 능청스럽고도 걸쭉했다. 민 영감은 말 속에 단단한 속뜻을 담아 생각을 펼치곤 했다. 민 영감은 언제나 말을 길게 늘어놓았지만, 끝에 가서는 모두 이치에 맞았다. 게다가 속속들이 풍자를 머금었으니, 변사(辯士)라고 할 만했다. 마치 전투에 나선 장수가 작전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듯 했는데, 자주 측면 공격이나 역습을 펼쳤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05. ㉠에 나타난 민 영감의 심정을 표현한 것은?

- ① 비분강개(悲憤慷慨) ② 맥수지탄(麥秀之嘆)
- ③ 망양지탄(亡羊之嘆) ④ 후생가외(後生可畏)
-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06~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형은 또 울었다. 밤이 깊도록 어머니까지 불러 가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동생도 형 곁에서 남모르게 소리를 죽여 흐느껴 울었다. 그저 형의 설움과 울음을 따라 울 뿐이었다. 동생도 이렇게 울면서 어쩐지 마음이 조금 흐뭇했다.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다. 바깥은 ㉠첫눈이 날날리고 있었다.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야하, 눈이 내린다, 눈이,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잣소리처럼 지껄었다.

“저것 봐, 저기저기, 에에이, 모두 잠만 자구 있네.” 동생의 허리를 쿡쿡 찌르지만 하면서……. 어느새 양덕도 지났다. 하루하루는 수월히도 저물어갔고 하늘은 변함

없이 푸르렀을 뿐이었다.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다. 경비병들의 겨울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천진한 애들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있곤 했다. 날로 날로 풀이 죽어갔다.

어느날 밤이었다.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즈음에 와선 늘 그렇듯 별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맘이 꽤 좋았었이야이.”

㉡“……”

“난 원래 다리에 ㉢담즙이 있는 데이. 너두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같다야.”

하고는 혜죽이 웃었다.

㉢“……”

동생은 놀라 돌아다보았다. 어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그려안으면서,

“칠성아, 야하, 흠씩은 춥다.”

㉣“……”

“저말이다, 엄만 날 늘 불쌍히 여겼었이야, 잉. 야, 칠성아,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헌 것같다야이.”

㉤“……”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별안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동생의 얼굴을 멀끔히 마주 쳐다보더니,

“왜 우니, 왜 울어, 왜, 왜. 어서 그치지 못하겠니.” 하면서도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혼잣소리도 풀이 없었다. “그만큼 걸었음 무던히 왔구만서두. 에에이, 이젠 좀 그만 걸지될, 무던히 걸었구만서두.”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흘끔 걸눈질해 보았다. 경비병들은 물론 알은 체도 안했다. 바뀐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다, 집에 가거든…….”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벌쭉 웃으면서,

“히히, 내가 무슨 소릴 허니. 네가 집에 갈 땐 나두 갈 텐데, 앙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한참 뒤엔 또 동생의 어깨를 그려안으면서, “야, 칠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바깥은 바람이 세었다. 거적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곤 하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었다.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또 벌쭉 성을 내며, “왜우니, 왜? 흐흐흐.”

하고 제 편에서 더 더 울었다.

머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 절름거려졌다.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잣소리 지껄이지 않았다. 평소의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런 낫색이었다. 돌레를 두리번거리며 경비병의 눈치를 흘끔거리기만 했다.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지껄이지 않았다. 그러나 먼 개 짖는 소리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동생은 또 참다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형은 왜 우느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 더 더 흐느꼈다.

그날 밤, 바깥엔 ㉧함박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두 날 형이라구 글지 마라, 어영?”

어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두 말구 모르는 체만 해, 꼭.”

동생은 부러 큰 소리로,
 “야하, 눈이 내린다.”
 형이 지껄일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㉔“.....”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꺾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그러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 기슭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
 다리를 쿡 찌르고는 견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의해 보아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돌려메면서,
 “메칠을 더 살겠대구 뼈득대? 뼈득대길.”

- 이호철, 「나상(裸像)」-

0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내적 독백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간접 인용을 활용하여 사건 전개에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주인공의 반복적 행위를 서술하여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07. ㉑~㉓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형’의 동심을 불러 일으킨다.
- ② ㉒은 형제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다.
- ③ ㉓은 ‘형’의 내면 풍경을 보여준다.
- ④ ㉔은 ‘형’의 최후를 암시한다.
- ⑤ ㉕은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08. 위 글을 시나리오로 각색하고자 할 때, ㉑~㉓의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에서는 ‘모두 잠들었을 무렵’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잠든 척 누워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 ② ㉒에서는 ‘놀라 돌아다 보았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걱정스레 ‘형’을 바라보는 ‘동생’의 표정을 보여주면 좋겠다.
- ③ ㉓에서는 춤다면서 끌어안는 ‘형’에게 기대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 ④ ㉔에서는 아파하는 ‘형’을 눈물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동생’의 안타까운 눈빛을 보여주면 좋겠다.
- ⑤ ㉕에서는 ‘부러 큰소리로’ 말했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자, ‘형’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09.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에서 작가는 북한군의 포로가 된 형제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특히 천진난만한 ‘벌거숭이 인간’인 ‘형’이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묘사하여 근원적인 인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준다. 또한 이 작품은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빌려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 ① 이 작품의 제목은 본연의 순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② ‘경비병’은 폭력적 상황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억압하고 길들이는 감시망을 상징한다.
- ③ ‘형’과 ‘동생’이 계속 걸어야만 하는 강제적 상황은 구성원을 획일화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④ 자신을 압박해오는 공포에 무감각한 ‘형’의 모습은 천진성을 파괴하려는 폭력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 ⑤ ‘형’이 그를 지켜보던 ‘경비병’의 총에 맞는 것은 감시자의 요구를 수행할 수 없는데 따른 희생을 보여준다.

2015학년도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B)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업 광고는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요긴하다. 기업은 마케팅 활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소비자는 소비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성능, 가격, 판매 조건 등의 정보를 광고에서 얻으려 한다. 광고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면 이를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 전체에 폐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과연 광고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로서 누구를 상정할 것인가였다. 초기에는 ㉑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 광고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는 이성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래서 기업은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고,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었다.

책임 주체로 기업을 상정하여 ㉒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복잡적이다.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고, 상품에 응용된 과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다른 상품 광고와의 차별화를 위해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장면도 자주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여러 광고 규제는 이런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크게 보아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을 통해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는 광고 또한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사실에 반하는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규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을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법적 규제가 광고의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강제적 조치라면, 자율 규제는 광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이다. 여기서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광고주, 광고업계, 광고 매체사 등이 광고 집행 기준이나 윤리 강령 등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한다.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10.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광고 규제의 배경과 유형
 - 피해 책임의 주체와 규제의 주체를 중심으로
- ② 광고 규제의 사회적 영향
 - 규제의 도입 배경과 원인을 중심으로
- ③ 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의의
 - 시대에 따른 소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 ④ 광고 규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 문제점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⑤ 광고 규제에 대한 대립적 시각
 -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 극대화 방안을 중심으로

1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광고 주체의 자율 규제가 잘 작동될수록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의 역할도 커진다.
- ②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정도가 클수록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필요성이 약화된다.
- ③ 시장 독과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약화되고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이 부각되었다.
- ④ 첨단 기술을 강조한 상품의 광고일수록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
- ⑤ 광고의 기만성을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 그 이유는 소비자에게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1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다 ㉡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 ② ㉠보다 ㉡이 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한다.
- ③ ㉠보다 ㉠을 따를 때 광고 표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 ④ ㉠보다 ㉠을 따를 때 정부가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
- ⑤ ㉠과 ㉡은 모두 광고의 역기능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광고 규제 중에는 소비자가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는 소비자 규제가 있다. 이는 소비자야말로 불공정하거나 불건전한 광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점에 근거한다. 이러한 광고들은 사회 전체에도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소비자 규제는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그릇된 정보의 유통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한다. 이때 규제의 주체로서 집단적 성격을 지니는 소비자는 법적 규제를 입안하거나 실행하는 주체는 아니다. 그래서 소비자 규제는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며, 소비자의 권리 행사는 소비자 보호 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 ① 소비자 규제는 소비자들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을 지지하겠군.
- ② 소비자 규제는 광고 규제의 효과 면에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보완한다는 의의가 있군.
- ③ 소비자 규제의 주체는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기 때문에 자율 규제의 주체와 긴장하는 관계에 있겠군.
- ④ 소비자 규제는 광고 주체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규제와 공통점이 있군.
- ⑤ 소비자 규제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군.

2013학년도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인들은 평상시에는 생존하기 위해 각자 노동에 힘쓰다가, 축제와 같은 특정 시기가 되면 함께 모여 신에게 제의를 올리며 놀이를 즐겼다. 노동은 신이 만든 자연을 인간이 자신에게 유용하게 만드는 속된 과정이다. 이는 원래 자연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한 죄를 씻기 위해 유용하게 만든 사물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집단적 놀이가 ㉠바로 제의였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유용한 사물을 희생물로 바치는 제의가 광범하게 나타났다. 바친 희생물은 더 이상 유용한 사물이 아니기에 신은 이를 받아들였다. 고대인들은 신에게 바친 제물을 함께 나누며 모두 같은 신에게 속해 있다는 연대감을 느꼈다.

고대 사회에서의 이러한 놀이는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시간을 늘렸지만, 오히려 노동력이 소진되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노동 시간을 축소하고 휴식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 휴식 시간마저도 대부분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려면 여행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해야 한다. 이런 소비는 소비자에게는 놀이지만 여행사에는 돈을 버는 수단이다. 결국 소비자의 놀이가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유용한 사물인 자본을 판매자의 손 안에 가져다준다. 놀이가 상품 소비의 형식을 띠면서 놀이를 즐기는 방식도 변화한다. 과거의 놀이가 주로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놀이는 대개 참여가 아니라 구경이나 소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생산자가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소비하도록 놀이 상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여행의 예를 다시 들면, 여행사는 여러 가지 여행 상품을 마련해 놓고 있고 소비자는 이를 구매하여 수동적으로 소비한다. 놀이로서의 여행은 탐구하고 창조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정에 그저 몸을 맡기면 되는 그런 것이 되었다.

그런데 이른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놀이에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하여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성향은 비교적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하다. 젊은 세대는 놀이의 주체가 되려는 욕구가 크다. 인터넷은 그런 욕구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준다. 인터넷의 주요 특성은 쌍방향성이다. 이는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가 대다수의 사람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었던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람들은 구경꾼이면서 참여자이며 수신자이자 송신자로 활동하며, 이러한 쌍방향적 활동 중에 참여자들 사이에 연대감이 형성된다.

14. 위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개념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고 있다.
- ② 필자의 관점을 명시한 후 다른 관점과 비교하고 있다.
- ③ 다양한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개념의 타당성을 따지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두 이론을 통합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중심 화제의 성격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1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 제의와 집단적 놀이가 결합되어 있었다.
- ② 고대 사회에서는 희생 제의를 통해 자연을 유용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 ③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휴식이 상품 소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 ④ 자본주의 사회에서 놀이가 상품화되면서 놀이를 즐기는 방식도 변화되었다.
- ⑤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놀이의 주체가 되려는 젊은 세대의 욕구 충족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16.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의 사례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회사원 A 씨는 축구를 좋아한다. 최근 A 씨는 근무 중 틈틈이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축구 경기 동영상을 즐겨 본다. 회사에서는
 ㉡일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를 풀라고 이를 허용한다. 주말이나 휴일
 아침에 A 씨는 ㉢친구들과 모여 축구 시합을 하고, 저녁에는
 ㉣경기장에 직접 가서 프로 축구 경기를 관람한다. 가끔 새벽에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인터넷 축구 방송을 보면서 친구들과
 댓글을 달며 같은 팀을 응원하기도 한다.

- ① ㉠은 쌍방향적 놀이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은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겠군.
- ③ ㉢은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한 예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은 놀이의 구경꾼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⑤ ㉤은 친구들과 사이의 연대감을 생기게 한다고 볼 수 있겠군.

17.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집에 도착하거나 바로 전화해 주십시오.
- ② 청소년의 미래는 바로 나라의 미래이다.
- ③ 마음을 바로 써야 복을 받는다고들 한다.
- ④ 우리는 국기를 바로 다는 방법을 배웠다.
- ⑤ 학생들은 모자를 바로 쓰고 단정히 앉았다.

2013학년도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 국정의 운영을 맡기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근대 정치의 고전적인 딜레마가 내포되어 있다. 가령 입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의원과 소속 지역구 주민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가정해 보자. 누구의 의사를 우선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의 행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뜻에 따라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조항에서 근거를 ㉠찾으면 될 것이다. 이 주장에서와 같이 대표자가 자신의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고 할 때 그런 대표 방식을 ㉡명령적 위임 방식이라 한다.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는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가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다를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4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는 이상 입법은 국회의원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의 목적은 국회의원 각자가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보다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지시에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대표자가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방식을 ㉢자유 위임 방식이라고 부른다.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구체적인 국가 의사 결정은 대표자에게 맡기고, 국민은 대표자 선출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통제한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국민이 갖는 이 대표자 선출권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유 위임 방식은 헌법 제1조 제2항에도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되어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극단적으로는 대표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대표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도 한다.

18.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견해의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두 견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③ 두 견해가 서로 인과 관계에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 ④ 두 견해의 공통점을 부각하여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한 견해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른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19. <보기>의 상황에 ㉠, ㉡을 적용할 때, 타당한 것은? [3점]

〈 보 기 〉

어떤 나라의 의회 의원인 A는 법안 X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소속 지역구 주민들은 법안 X가 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되리라는 우려에서 A에게 법안 X에 반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① ㉠ : A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때는 X에 찬성할 수 있다.
- ② ㉠ : A는 지역구 주민의 의사가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면 기권해야 한다.
- ③ ㉡ : A는 반대하기로 선거 공약을 했다면 X에 반대해야 한다.
- ④ ㉡ : A는 소속 정당의 당론이 찬성 의견이라면 X에 찬성해야 한다.
- ⑤ ㉡ : A는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가 타당하더라도 X에 찬성할 수 있다.

2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유 위임 방식을 채택한 국가에서 ㉢의 도입은 선택적이다.
- ② 법률안 등을 국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제도는 ㉢에 해당한다.
- ③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을 도입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 ④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차별 없이 대표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에 해당한다.
- ⑤ ㉢의 도입은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21.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누나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 ② 아버지는 이 약을 복용하고 생기를 찾았습니다.
- ③ 그는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 ④ 형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 노력했다.
- ⑤ 그들은 자신의 안일과 이익만을 찾다가 화를 입었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격의 변화가 인간의 주관성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는다는 가설이 정통 경제 이론의 핵심이다. 이러한 정통 경제 이론의 입장에서 증권시장을 설명하는 기본 모델은 주가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가설로부터 출발한다. 기본 모델에서는 기업이 존재하는 동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 즉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자본의 가격으로 본다. 기업가는 이 내재적 가치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그런데 투자를 통해 거두어들일 수 있는 총 이익, 즉 기본 가치를 측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익의 크기를 예측할 때 신뢰할 만한 계산과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

증권시장은 바로 이 기본 가치에 대한 믿을 만한 예측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유용성을 갖는다. 증권시장은 주가를 통해 경제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즉, 투자를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해 자본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효율성까지 높여 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증권시장은 실물경제의 충실한 반영일 뿐 어떤 자율성도 갖지 않는다.

이러한 기본 모델의 관점은 대단히 논리적이지만 증권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적절한 분석까지 제공하지는 못한다. 실제로 증권시장에서는 주식의 가격과 그 기업의 기본 가치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투기적 거품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본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다. 실제로 증권시장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기본 모델이 이러한 가격 변화를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증권시장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증권시장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참조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기참조 모델의 중심 내용은, 사람들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읽을 목적으로 실물 경제보다 증권시장에 주목하며 증권시장의 여론 변화를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기본 모델에서 가격은 증권시장 밖의 객관적인 기준, 즉 기본 가치를 근거로 하여 결정되는 반면에 자기참조 모델에서 ㉠ 가격은 증권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증권시장 밖의 객관적인 기준을 분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려고 안간힘을 다할 뿐이다. 기본 가치를 분석했을 때는 주가가 상승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도 투자자들은 증권시장의 여론에 따라 주식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상한 합리성을 '모방'이라고 한다. 이런 모방 때문에 주가가 변덕스런 등락을 보이기 쉽다.

그런데 하나의 의견이 투자자 전체의 관심을 꾸준히 끌 수 있는 기준적 해석으로 부각되면 이 '모방'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모방을 통해서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다수의 비전, 즉 '목계'가 제시되어, 객관적 기준의 결여라는 단점을 극복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목계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며, 증권시장은 이러한 목계를 조성하고 유지해 가면서, 단순히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22. 위 글의 논지 전개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업과 증권시장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 ② 증권시장의 개념을 단계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 ③ 사례 분석을 통해 정통 경제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④ 주가 변화의 원리를 중심으로 상이한 관점을 대비하고 있다.
- ⑤ 증권시장의 기능을 설명한 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2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증권시장은 객관적인 기준이 인간의 주관성보다 합리적임을 입증한다.
- ② 정통 경제 이론에서는 가격의 변화가 객관적인 근거를 갖는다고 본다.
- ③ 기본 모델의 관점은 주가가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 ④ 증권시장의 여론을 모방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주가가 변덕스런 등락을 보이기도 한다.
- ⑤ 기본 모델은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 기업의 내재적 가치에 주목하지만 자기참조 모델은 증권시장의 여론에 주목한다.

24. 위 글을 읽고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999년 말 A라는 건설한 완구 업체의 총 매출은 적자에 허덕이던 B라는 온라인 판매 경쟁 업체의 400배가 넘었지만, 증권시장에서의 자본 평가는 B사의 1/4에 불과했다. 이처럼 기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증권시장은, “앞으로 전자 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인터넷 관련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사람들이 주식을 거래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 ① A가 B보다 기본 가치가 큰 업체라고 볼 수 있다.
- ② 증권시장이 ‘자율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예이다.
- ③ ‘증권시장이 내놓은 분석’은 기본 모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 ④ 증권시장 참여자들은 기본 가치보다는 증권시장의 여론을 따랐을 것이다.
- ⑤ ‘이처럼 기묘한 상황’은 주가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을 보여 준다.

25. ㉠을 <보기>와 같이 표현해 보았다. 빈칸에 들어갈 어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가격은 여론의 ()에 달려 있다.

- ① 반향(反響)
- ② 비준(批准)
- ③ 상충(相衝)
- ④ 진퇴(進退)
- ⑤ 향배(向背)

26.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자기참조 모델에 따르면 증권시장은 ()

- ①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경제의 원리가 구현되는 공간이다.
- ② 기본 가치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금융시장이다.
- ③ 객관적인 미래 예측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금융시장이다.
- ④ 기업의 주가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일치시켜 나가는 공간이다.
- ⑤ 투자자들이 목계를 통해 자본의 가격을 산출해 내는 제도적 장치이다.

2006년 7월 인천시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단어 연상법’은 프랜시스 갬턴이 개발한 것으로서, 지능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피실험자에게 일련의 단어들을 토박토박 읽어주면서 각각의 단어를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말하게 하고, 실험자는 계시기를 들고 응답 시간, 즉 피실험자가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차트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실험은 대개 1백 개 가량의 단어들로 진행했다. 갬턴은 응답 시간을 정확히 ③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의 양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지능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 (나) 그런데 용은 이 실험에서 응답 시간이 늘어질 경우 피실험자에게 왜 응답을 망설이는지 물어보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그러자 놀랍게도 피실험자는 자신의 응답 시간이 늦어지는 것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했다. 용은 거기에 틀림없이 어떤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갔다. 한번은 말[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떤 피실험자의 응답 시간이 무려 1분이 넘었다. 자세히 조사해 보니 그 피실험자는 과거에 사고로 말을 잃었던 아픈 기억을 지니고 있었다. 실험이 있기 전까지는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이 실험 과정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 (다) 용의 연구 결과 단어 연상의 응답 시간은 피실험자의 정서에서 큰 영향을 받으며, 그 실험법은 감춰진 정서를 찾아내는 데 더 유용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정신적 연상의 연구를 통해 지능의 종류를 판단하고자 했던 단어 연상 실험이 오히려 그와는 다른 방향, 즉 무의식적인 감정이 빚어내는 효과를 드러내는 데 더 유용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그동안 갬턴을 비롯하여 그 실험법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실시했던 연구자들은 지연된 응답의 배후에 있는 피실험자의 정서에 주목하지 않았으며, 단지 응답의 지연을 피실험자가 반응하지 못한 것으로만 기록했던 것이다.
- (라) ㉠용이 그린 그래프들은 특정한 단어에 ㉡따르는 응답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다. 첫째, 대담 과정에서 감정이 생겨난다. 둘째, 응답의 지연은 모종의 인식하지 못한 과정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다. 하지만 이 기록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거나 중요성을 ㉢따지기에는 너무 일렀다. 피실험자의 의식적 의도와는 별개로 작동하는 뭔가 알지 못하는 지연 행위가 있음이 분명했다.
- (마) 당시에 성행했던 심리학 연구나 심리학을 정신의학에 응용하는 연구는 주로 의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단어 연상법의 심리학에 대한 실험 연구도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용은 의식 또는 의지의 작용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그는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끌어들인다. 용의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특수한 종류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인데, 이것이 응답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이후 여러 차례 실험을 거듭한 결과 그 결론은 사실임이 밝혀졌으며, 콤플렉스와 개인적 속성은 용의 사상 체계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2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 : 대상이 되는 연구 방법의 진행 과정과 그 한계를 서술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나) : 기존의 연구 방법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며 화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다) : 기존의 연구자들이 간과했던 새로운 사실을 찾아낸 용의 실험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
- ④ (라) : 용의 실험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마) : 새롭게 드러난 심리적 개념을 하나의 용어로 정리하며 논의를 마무리 짓고 있다.

28. 위 글을 읽고 나서 <보기>와 같은 추가 자료를 접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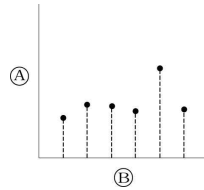
[자료 1] '콤플렉스'는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는 거대한 에너지의 원천으로, 그 자체가 병적인 것은 아니다. 이 에너지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파괴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데, 콤플렉스가 생산적 에너지로 작용할 때, 그것을 '위대한 콤플렉스'라고 한다.

[자료 2] 화가 고흐는 죽은 형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나기 한 해 전 같은 달 같은 날짜에 태어나자마자 죽은 첫 아들과 고흐를 동일시하여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성장 과정은 고흐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하였다.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고흐의 작품은 자기만의 것에 집착했던 그의 성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반 고흐의 의자'(왼쪽 그림)에 그려진 파이프와 담배는 아버지의 것으로, 어릴 적부터 그토록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고흐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 ① 고흐에게는 콤플렉스가 생산적 에너지로 작용하였군.
- ② 고흐의 독창적 그림 세계는 어릴 적 체험과 관련이 있겠군.
- ③ 고흐의 부모는 고흐의 콤플렉스를 형성하는 데 큰 작용을 하였군.
- ④ 고흐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림을 그렸겠군.
- ⑤ 고흐에게 단어 연상법을 실시했다면 '형'이라는 단어에서 머뭇거렸겠군.

29. ㉠을 다음과 같이 그렸을 때 ㉡, ㉢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 ㉡ | ㉢ |
| ① | 응답 시간 | 단어 |
| ② | 단어 | 응답 시간 |
| ③ | 응답 시간 | 감정 |
| ④ | 감정 | 응답 시간 |
| ⑤ | 감정 | 단어 |

30. ㉠ ~ ㉢을 대체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측정(測定)하기 ② ㉡ : 수반(隨伴)하는
- ③ ㉢ : 추궁(追窮)하기에는 ④ ㉢ : 도입(導入)한다
- ⑤ ㉢ : 입증(立證)되었으며

2006년 10월 서울시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스크류 없는 배가 바다를 달리는 것이 가능할까? 초전도 선박이라면 가능하다. 1992년 시험 운행을 통해 선을 보인 초전도 선박은 스크류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없으면서도 고속으로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거기에는 '초전도 현상'이란 비밀이 담겨 있다.

초전도 현상은 어떤 특정 온도(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말한다. 이 현상은 네덜란드의 오톨프 헤이크(Heike Onnes)가 처음 발견했다. 그는 기체인 헬륨을 압축하여 절대온도 4도(섭씨 -269도)의 액체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고, 이 액체 헬륨을 이용하여 물질의 온도를 절대온도 0도에 가깝게 냉각시킬 수 있었다. 그는 수은을 냉각시키면서 전기저항을 측정하던 중 절대온도 4.2도 근처에서 수은의 저항이 급격히 사라져 결국 0이 되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초전도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반세기가 지나서야 이루어졌는데, 공동 연구자들의 이름 첫 자를 딴 BCS이론이 그것이다. 금속이 저항을 갖는 것은 전자가 흐를 때 금속 이온에 부딪히기 때문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 초전도 상태에서 전자들은 둘씩 짝을 지은 '쿠퍼쌍'을 이룬다. 쿠퍼쌍은 금속 이온의 방해에 관계없이 액체처럼 흐를 수가 있고, 그래서 전기저항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을 초전도체라 하는데, 초전도체는 완전한 전기 전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손실 없이 전기를 수송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만든 코일을 사용하면 대단히 우수한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초전도체는 완전 반자성의 성질도 지니고 있다. 완전 반자성이란 주위에 자기장이 있을 때 물질의 표면에 표면 전류가 흘러 그 자기장을 없애 버리고 내부에 자기장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완전 반자성의 반발 작용을 이용하면,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두어 공중에 떠오르게 하거나 반대로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띄우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초전도 현상이 워낙 낮은 온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초전도체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그 임계온도를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초전도물질의 개발을 통해 임계온도를 꾸준히 높여 가고 있고, 초전도체는 이미 의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MRI라고 부르는 핵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에는 강력한 자석이 필요한데, 이 자석은 초전도 전선에 강력한 전류를 흘려 만든다. 미래의 에너지 제조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초전도 자석이 필요하며, 초전도자석의 자기부상 효과는 자기부상 열차의 핵심 원리로 사용된다. 앞에서 소개했던 초전도 선박의 힘의 근원도 초전도자석이다. 선체 밑에 초전도자석을 설치하여, 이것으로 해수에 자기장을 걸어 주고 전류를 흘리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른 전자기력이 생기는데, 그 힘을 배가 운항하는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제 절대온도 25도 이상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고온 초전도체의 등장이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의 국가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을 만들고 이를 응용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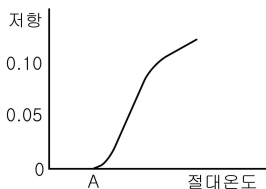
31. 위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전도체의 임계온도가 높을수록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쉬울 거야.
- ② 오네스가 초전도 현상을 발견한 것은 기체인 헬륨을 액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아야겠군.
- ③ 전기 저항을 이용하여 열을 내는 전열 기구의 주요 재료로 초전도체를 사용하면 열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거야.
- ④ 금속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들이 쌍을 이루어서 금속 이온과의 충돌을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겠군.
- ⑤ 자기장의 반작용을 이용해서 레일 위를 떠서 달리는 자기 부상 열차의 원리는 초전도체의 완전 반자성이라는 특성과 관계 깊을 거야.

32. 위 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물음을 던짐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한다.
- ②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내용 전개에 바탕으로 삼는다.
- ③ 과제를 제시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 ④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여 이해를 돕는다.
- ⑤ 대상이 응용되는 사례들을 열거하여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

33. 아래의 그래프는 어떤 물질의 온도와 전기저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위 글의 내용을 참조할 때,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지점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임계온도이다.
- ② 이 물질은 A 지점에서 완전 반자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 ③ A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온도와 저항이 대체로 비례한다.
- ④ 이 물질의 전자들은 A 지점에 이르러 '쿠퍼쌍'을 이룰 것이다.
- ⑤ A 지점에서 모든 초전도물질의 저항과 온도는 동일할 것이다.

34. 위 글의 내용을 참조할 때, <보기>의 의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초전도체로 된 전선으로 고리를 만든 다음, 외부에서 전류를 한 번만 흘려 주고 끊는다면 어떻게 될까?

- ① 전류를 흘려 주었을 때뿐만 아니라 끊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전류가 흐를 것이다.
- ② 전류를 흘려 주었을 때뿐만 아니라 끊은 이후에도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을 것이다.
- ③ 전류를 처음 흘려 준 순간에만 전류가 흐르고 그 이후부터는 전혀 흐르지 않을 것이다.
- ④ 전류를 흘려 준 순간에는 강한 전류가 흐르다가, 끊고 난 후에는 매우 약해질 것이다.
- ⑤ 전류를 흘려 줄 때는 약한 전류가 흐르다가 끊고 난 후부터는 강한 전류가 흐를 것이다.

2004학년도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35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님을 그리스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숫하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둘 아오
 ㉠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녀시라도 님은 훈디 녀져라 아오
 베키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몰히마리신덕*
 슬웃분덕* 아오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서

- 정서, 정과정(鄭瓜亭) -

- * 베키더시니 : 우기던 사람이.
- * 몰히마리신덕 : 못 사람의 혈뜬는 말이로다.
- * 슬웃분덕 : 슬프구나.

(나)

어이 못 오던가 무삼 일로 못 오던가
 [A] [너 오는 길에 무쇠로 ㉡ 쇠를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뉘주 놓고 뉘주 안에 귀를 놓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必字形)으로 결박하여 넣고 쌍배목(雙排目)* 결쇠에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 있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한 해도 열두 달이오 한 달 서른 날에 ㉢ 날 와 볼 하루 없으랴
 - 작자 미상의 시조 -

- * 쌍배목 : 쌍으로 된 문고리를 거는 쇠.

(다)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염천(南方炎天)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 오르니 굴뚝 막는 덕석인가
 덥고 검기 다 버려도 내음새는 어찌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이도 되었고나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웁더니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하게 빌어 있어
 옥식진찬(玉食珍饈)* 어디 가고 맥반염장(麥飯鹽藏)* 되었으며
 금의화식(錦衣華飾)* 어디 가고 현순백결(懸鵝百結)* 되었는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는가 모양은 귀신일다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어이없어
 도로혀 웃음 나니 미친 사람 되겠구나
 어와 보리가을 맥풍(麥風)이 서늘하다
 앞산 뒷산에 황금을 펼쳤으니
 지계를 벗어놓고 앞 산을 굽어보며
 ㉠ 한가히 베는 농부 문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 단술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본들 무엇하리
 연년(年年)이 풍년 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리고 용정(舂精)*에 쓸어내니
 일분(一分)은 밥쌀하고 일분(一分)은 술쌀하여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含哺鼓腹)하고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는 양
 농가의 좋은 흥미 저런 줄 알았다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에 힘쓸 것을
 ㉡ 백운(白雲)이 즐기는 줄 청운(靑雲)이 알 양이면
 꽃 탐하는 벌나비 그물에 걸렸으랴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 * 옥식진찬, 금의화식 : 좋은 음식과 의복.
- * 맥반염장, 현순백결 : 빈약한 음식과 누더기 옷.
- * 용정 : 곡식을 찧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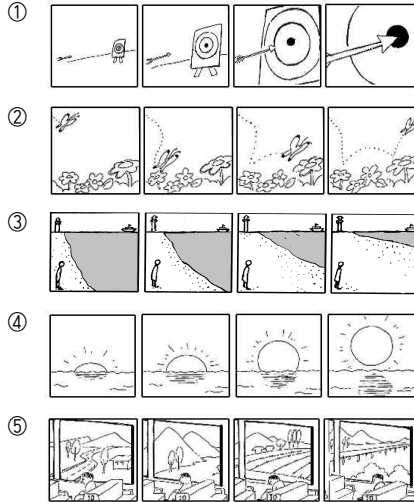
35. (가)~(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는?

- ① 현실에 대해 냉소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을 원망(怨望)하고 있다.
- ③ 부당한 현실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④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 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36. (가), (나)의 표현상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가)는 대구와 대조를 통해 울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② (가)는 설명적 진술을 통해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
- ③ (나)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 ④ (가), (나)는 자연물에 의탁하여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말을 거는 듯한 효과를 내고 있다.

37. (나)의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가장 적절한 것은?



38. <보기>를 참조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작품의 창작 및 향유 상황을 고려할 때, 유배가사를 단순히 유배지에서
 의 삶을 그린 가사로 보기는 어렵다. 유배가사는 작가가 유배지에서 풀려
 날 목적으로 임금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지은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지었다고 가정했을 때,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더욱 정교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다.

- ① 자신을 '벌나비'에 빗댄 것은 자신의 죄를 유혹에 약한 인간 본성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 ② 죄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유배지에서
 의 고난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③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인식한 것은, 유배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 ④ '그물에 걸렸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작가가 죄를 지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겠군.
- ⑤ 공명(功名)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작가가 유배
 에서 풀려나면 벼슬길에 다시는 나아가지 않겠군.

3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화자의 결백과 심적 상황을 암시한다.
- ② ㉡ : 화자와 '너'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을 의미한다.
- ③ ㉢ : '너'에 대한 그리움과 가벼운 책망이 공존한다.
- ④ ㉣ : 정신적, 물질적인 여유를 지닌 대화 상대자이다.
- ⑤ ㉤ : 안타까움과 후회의 정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40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떻게 하면 가장 민첩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자연스럽게 순영의 입술을 건드리나-

나는 약 삼 분 가량의 지도(地圖)를 설계하였다. 우선 나는 순영의 정면으로 다가서 보는 수밖에-

그때 나는 참 이상한 것을 느꼈다. 월광 속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순영의 얼굴이 웬일인지 왼쪽으로 좀 빼돌려져 보이는 것이다.

나는 큰 범 죄나 한 사람처럼 냉큼 바른편으로 비켜섰다. 나의 그런 불손한 시각을 정정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위치의 불리로 말미암아서도 나는 순영의 입술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실로 사 년 전 첫여름 어느 별빛 좋은 밤) 경관(警官)이 무엇 하러 왔는지 왔다. 나는 삼천포읍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순영은 회령읍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다. ㉠ 내 그 인색한 원근법이 일사천리지세로 남북 이천오백 리라는 거리를 급조하여 나와 순영 사이에도 퍼놓는다. 순영의 얼굴에서 순간 월광이 사라졌다.

아내가 삼천포에서 편지를 했다. 곧 돌아가게 될는지 좀 지체가 될는지 지금 갈아서는 도무지 짐작이 서지 않는단다.

내 승낙 없이 한 아내의 외출이다. 고물 장수를 불러다가 아내가 벗어 놓고 간 버선짝까지 모조리 팔아먹으려다가-

아내가 십 중의 다섯은 돌아올 것 같았고 십 중의 다섯은 안 돌아올 것 같았고 해서 사실 또 가랬잖아 갈 데가 있는 바 아니고 예라 재빠져서 어디 오나 안 오나 기다려 보자꾸나-

싫어서 나는 저녁이면 윤(尹) 군을 이용해서는 순영이 있는 바(bar) '모로코'예를 부르니까 드나들었다.

아내가 달아났다는 공상이 술 먹는 남자에게는 술 먹기 좋은 구실이다. 십 중 다섯은 아내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눈치를 눈곱만치라도 거죽에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내 조금도 슬프지 않은 슬픔을 재주껏 과장해서 순영의 동정심을 끌기에 노력했다. 그러나 ㉡ 이런 던적스러운 청승이 결국 순영을 어찌할 수도 없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순영은 광주로 갔다. 가던 날 순영은 내게 술을 먹였다. 나는 그의 치맛자락을 잡아 찢고 싶었다. 나는 울었다. 인생은 허무하되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순영은 이것은 아마 술이 부족해서 그러나 보다고 여기고 맥주 한 병을 더 청하는 것이었다.

반 년 동안 나는 순영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동안에 십 중 다섯으로 아내가 돌아왔다. 나는 이 아내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나는 전의 열 갑절이나 사랑할 수 있었다. 내 순영에게 향하여 잔뜩 굶은 애정이 이에 순영이 돌아오기 전에 터져 버린 것이다. 아내는 이런 나를 넘보기 시작했다.

반년 만에 돌아온 순영이 돌아서서 침을 탁 배알는다. 반년 동안 외출했던 아내를 말 한마디 없이 도로 맞는 내 얼굴 위에도-

부질없는 세월이 사 년 흘렀다. 아내의 두 번째 외출은 십 중 다섯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 나는 내 고독을 일급 일 원 사십 전과 바꾸었다. 인쇄 공장 우중충한 속에서 활자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생활을 찍어 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순영이 그의 일터를 옮기는 대로 어디까지든지 쫓아다니지 않을 수 없었다. 일급 일 원 사십 전에 팔아 버린 내 생활에 그래도 얼마간 기꺼운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순영 앞에서 술잔을 주무르는 동안뿐이었다. 그러나 한번 돌아선 순영의 마음은- 아니 한 번도 나를 향하지 않은 순영의 마음은 남북 이천 오백 리와 같이 차디찬 거리 저편의 것이었다. 그 차디찬 거리 이편에는 늘 나와 나처럼 고독한 송(宋) 군이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나는 이미 순영 앞에서 내 고독을 호소할 수조차 없어졌다. 나는 송

군의 고독을 빌려다가 순영 앞에서 울었다. 송 군의 직업은 송 군의 양심이 증발해 버린 뒤의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몹시 고민한다. 얼굴이 중이처럼 창백하다. 나는 이런 송 군의 불행을 이용하여 내 슬픔을 입증시켜 보느라고 실로 천만 여의 단자(單字)를 허비했다. 순영의 얼굴에는 붉다운 흥조가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 나는 어느 틈엔지 나 자신의 위치를 그만 잃어 버리고 말았다. 필사의 노력으로 겨우 내 위치를 다시 탈환했을 때에는 이미,

송 선생님이세요? 이상(李箱) 씨하구 같이(이것은 과연 객쩍은 덧붙이개였다) 오늘 밤에 좀 놀러 오세요- 네?

이런 전화가 끝난 뒤였다. 송 군은 상반기 상여금을 받았노라고 한잔 먹잔다.

먹었다.

취했다.

몽롱한 가운데서 나는 이 땅을 떠나리라 생각했다. 머거리 동경으로 가 버리리라.

갈 테야 갈 테야. 가 버릴 테야(동경으로).

아이 더 놀다 가세요. 벌써 가시면 주무시나요? 네? 송 선생님-

㉤ 송 선생님은 점을 쳐 보나 보다. 괘(卦)는 이상에게 '고기'를 대접하라 이렇게 나온 모양이다. 그래서 송 군은 나보다도 먼저 일어섰다. 자동차를 타자는 것이다. 나는 한사코 말렸다. 그의 재정을 생각해서도 나는 그를 그의 하숙까지 데려다주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하숙이 층 그의 방에서 그는 몹시 게웠다. 말간 맥주만이 올라왔다. 나는 송 군을 청결하기 위하여 한 시간을 진땀을 흘렸다. 그를 눕히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유월의 밤바람이 아카시아의 향기를 가지고 내 피곤한 피부에 간질이는 것이었다. 나는 '멕시코'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토하면서 울고 울다가 잠이 든 송 군을 생각했다.

순영에게 전화나 걸어 볼까.

순영이? 나 상(箱)이야- 송 군 집에 잘 갖다 두었으니 안심할 일-

오늘은 어쩐지 그냥 울적해서 견딜 수가 없단다. 집으로 가 일찍 잠이나 자리라 했는데 '멕시코'에-

와두 좋지- 헐 이야기두 좀 있구-

조용히 마주 보는 순영의 얼굴에는 사 년 동안에 확실히 피로의 자취가 늘어 보였다. 직업에 대한 극도의 염증을 순영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호소한다. 나는 정색하고,

송 군과 결혼하지 응? 그야말로 송 군은 지금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오- 송 군이 가진 양심, 그와 배치되는 현실의 박해로 말미암은 갈등, 자살하고 싶은 고민을 누가 알아주나-

송 선생님이 불현듯이 만나 뵈구 싶군요.

십 분 후 나와 순영이 송 군 방 미닫이를 열었을 때 자살하고 싶은 송 군의 고민은 사실화하여 우리들 눈앞에 놓여 있었다.

아로날 서른여섯 개의 공동(空洞) 곁에 이상의 주소와 순영의 주소가 적힌 종잇조각이 한 자루 칼보다도 더 냉담한 촉각을 내쏘으면서 무엇을 재촉하는 듯이 놓여 있었다.

나는 밤 깊은 거리를 무릎이 척척 접히도록 쓰다녀 보았다.

- 이상, 환시기(幻視記) -

40. 위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트와 유머를 구사하여 사건의 의미를 희화화하고 있다.
- ② 독백적 어조를 통해 작가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③ 간결하고 호흡이 빠른 문체를 통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④ 반어적 상황 설정으로 인물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당시의 세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도회적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41. 위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순영은 아내와의 불화에 빠져 있는 '나'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② 아내는 가솔과 귀가를 반복함으로써 '나'와 순영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
- ③ 송 군은 사랑의 갈망과 현실의 제약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 ④ '나'와 순영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애증의 관계이다.
- ⑤ 순영은 번민에 사로잡힌 송 군에게 연모의 정을 품고 있다.

42. ㉠~㉡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와 순영의 관계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 ② ㉡: 치사할 정도로 치근거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 ③ ㉢: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루 종일 일에 매달렸다.
- ④ ㉣: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반응에 흡족해하였다.
- ⑤ ㉤: 주저하다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3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흄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 * 삼긴: 삶긴. 물에 삶아 우려냄.
- ** 덩그럭 불: 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 잠착하다: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 책력: 달력.

(나)

①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술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 동 동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빠꾸기.....

②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엮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발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 불이 고운 나의 사람.

③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빠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

(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

43. (가)~(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영단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 ④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를 통해 생명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44. <보기>와 같이 학습 과제를 수행한 후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 이 시의 창작 시기와 배경에 대해 조사해 본다.
 - 일제 말기인 1941년에 발행된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인 『백록담』에 실린 작품. 이 무렵 정지용은 서울에 살고 있었음.
2. 작품 제목의 의미를 알아본다.
 - 인동차(忍冬茶)는 한약재로도 쓰이는 인동의 줄기와 잎사귀를 말려 달여 먹는 차. 인동은 인동과의 반(半) 상록 덩굴성 식물. 인동에는 '겨울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 있음.
3. 이해하기 어려운 시어를 조사한다.
 - 장벽: 위장과 같은 내장의 벽.
 - 무시로: 아무 때나.
4. 이 시가 갖는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본다.
 - 시상 전개: ……
 - 이미지: ……
 - 특이한 표현: ……

- ① 창작 시기와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시에서는 겨울로 비유된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정신적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아.
- ② '장벽에 / 무시로 인동 삼킨 물이 나린다.'는 구절은 '차를 마신다'는 평범한 사실을 낯설게 바꾸어 표현한 것 같아.
- ③ '덩그럭 불이 / 도로 피어 붉고'라는 표현에서 실내의 분위기와 함께, 시간의 흐름을 엿볼 수 있어.
- ④ '책력도 없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바쁘게 살아가는 도회적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하얗다'를 '하얇다'라고 표현한 것은 언어 규범에 어긋나지만, 정감의 깊이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어

45. (나)의 ㉠와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초월적 존재이다.
- ② ㉠와 ㉡는 모두 화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부정적 존재이다.
- ③ ㉠는 화자로 하여금 과거를 잊게 해 주는 존재이고, ㉡는 화자와 반목하는 존재이다.
- ④ ㉠는 현실의 모순을 심화하는 존재이고, ㉡는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 주는 존재이다.
- ⑤ ㉠는 화자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 줄 존재이고, ㉡는 화자의 방향을 유발하는 존재이다.

46. (나)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보 기>—

원시 시대의 인간은 주술적(呪術的) 언어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였다. 박두진의 『청산도에는 이러한 주술적 언어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자연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삼는 것, 시어를 반복·변용하는 것,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7. (다)의 특징을 빌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려고 한다. 창작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품 중간에 감정을 직접 드러낸 표현을 넣는다.
- ② 냉소적 어조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 ③ 마지막 행을 명사로 끝맺어 여운을 준다.
- ④ 조사와 구두점을 적절히 생략한다.
- ⑤ 계절감을 주는 소재를 활용한다.

2010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48 ~ 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 황만근이 새벽에 경운기를 타고 나가서 다음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민씨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민씨는 이장이 꿩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제 밤에 내일 꿩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꿩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잖아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다.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부채 탕감 촉구 전국농민 총궐기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여에서 술 처먹고 주질러앉았을 끼라. 백 릿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 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방침이 그렇다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이를 몰았나. 남들이 못 몬다뿌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올매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가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마 군 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고 온 사람도 밧 없더마. 소리마 밧 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괘 이맨구로 썩썩 달리는데 받치만 우애라고. 다른 동네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썩어.”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잖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니,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싸. 누구맨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기어이 민씨는 소리를 버럭 지르코야 말했다.

“㉔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구요.”

“이 자숙이 뉘 앞에서 눈까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뽉뽉 질러쌌노. ㉕도시에서 쫓딱 망해가고 귀농을 했시모 안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키줄까 말까 한데, 뭐라꼬? 내가 만그이 이미냐, 애비냐. 나이 오십 다 된 기 어대를 가든동 오든동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사리 끌고 따라다니꼬?”

[중략 부분 줄거리 - 황만근이 실종되어 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불편해 한다. 유복자로 여덟 달만에 태어난 황만근은 지능이 모자라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마을에서 반편이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마을의 온갖 굶은일을 도맡아 하는 부지런한 농사꾼으로 살아왔다.]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농민 총궐기대회’가 열린다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저녁에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황만근은 누구보다 먼저 나타났고 이장이 시키는 대로 마을구판장에서 막걸리를 받아왔다. 스테인리스 물잔이 두어 개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마시면 다음 사람이 받고 하는 식의 술자리였다. 황만근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번개처럼 잔을 들어 마시는 눈을 꿈벅거리면서 잔이 도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황만근의 관심은 오로지 잔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 것뿐인 듯했다. 그래도 잔이 도는 속도는 너무 느렸다. 민씨에게는 좀 빠른 듯했지만.

“그래서 우리 동네서도 군청 앞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원 참가를 해야겠다, 이 말이라. 집에 돌아가거들랑 경운기를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민소 앞까정 끌고 와서 집합을 하라는 기 행동지침이라. 그러가고 군청까지 가는 국도로 경운기로 길기 행진을 하민서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이주는 기라.”

“경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쩌나요?”

민씨가 물었다.

“농사짓는 사람이 경운기도 없다 하마 농사꾼이 아니지랄. 그래께 민씨는 농사짓는 기 아이라. 비리루하우스 안에 꽃 밭 송이 심가놓고 우째 농사를 짓는다 카나.”

“어디 고장 난 경운기는 없어요? 경운기가 꼭 있어야 합니까.”

무안해진 민씨는 둘러보며 물었다. 새마을지도자인 황철석이 대답했다.

“말이 그렇다는 기지, 민소’까지는 경운기를 끌고 가든동 버스를 타고 가든동 하고, 그 답에는 경운기를 같이 타마 되지, 까이거. 그란데 민씨는 진짜 농사꾼도 아이민서 왜 자꾸 농민궐기대회에 나갈라꼬 캐싸.”

“아아, 저도 부채는 남부럽지 않게 있어요.”

또래인 황학수가 말을 이어받았다.

“농사를 지도 부채, 농사를 몰라도 부채. 아이고, 그라마 우리를 다 합치기이고 부채 말고 선풍기를 해도 되겠네.”

그날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렇다고 시시덕거리며 끝낼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농협에서 융자금 상황을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서 법원에 불러 다니는 사람이 두셋 되었다. 스스로 진 빚도 문제였지만 서로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한 가구가 파산하면 보증을 선 사람 역시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동네 전체가 야반도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 민소 : 면소, 면사무소의 사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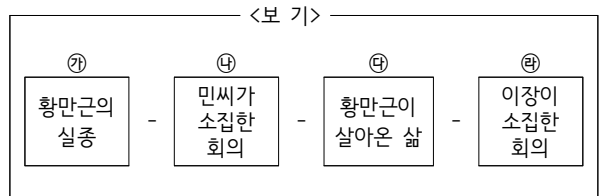
4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의 행위를 과장하여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 ② 극적인 반전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③ 구어체 사투리를 구사하여 작품에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섬세한 인물 묘사를 통해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장면 변화에 따라 서술 시점을 달리 해 입체감을 주고 있다.

49.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이장’은 방침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② ㉒ : ‘민씨’는 상식적인 이치를 들어 ‘이장’의 잘못을 따지고 있다.
- ③ ㉓ : ‘이장’은 당시의 상황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있다.
- ④ ㉔ : ‘민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이장’의 태도에 분노해서 흥분하고 있다.
- ⑤ ㉕ : ‘이장’은 경제적 지위를 앞세워 자신의 열세를 만회하려 하고 있다.

50. 위 글의 내용 흐름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는 시간상으로 ㉓와 ㉔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 ② ㉒와 ㉔에 드러나는 회의 분위기는 동일하다.
- ③ ㉒와 ㉔를 통해 ㉑의 정황을 알 수 있다.
- ④ ㉓에 요약된 내용이 ㉒와 ㉔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⑤ ㉔를 개최한 이유는 ㉓에서 해결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51.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투쟁 방침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경운기를 타고 농민궐기대회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결국 경운기 사고로 죽은 황만근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 속에서 민씨는 궐기대회 전날 밤 황만근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농사꾼은 빛을 지마 안된다 카이.” / “기계화영농 카더이 마 집집마다 바뀌 달린 기계가 밋이나 되나.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거다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빛으로 산 기라. 농사지봐야 그 빛 값느라고 정신 없다.” / “그런 기 다 쌀값에 언차진다. 언차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마 먹고살기 간당 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빛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카는데 돌 다 안 했으마 좋겠다. 돌 다 농사꾼을 바보 멧렁구리로 만든다.” ……」

농민으로서 진솔한 삶을 살아 온 황만근의 안타까운 죽음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 ① 마을 사람들에게 반편이로 취급받던 황만근이 농민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② 힘겨운 농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영농 정책이 없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원칙을 지키다 죽은 황만근의 모습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 ④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계를 사느라 빛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실상을 그리고 있다.
- ⑤ 황만근의 희생으로 마을 사람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④	2.③	3.②	4.③	5.①	6.⑤	7.②
8.⑤	9.④	10.①	11.④	12.④	13.①	14.⑤
15.②	16.①	17.②	18.①	19.⑤	20.④	21.①
22.④	23.①	24.③	25.⑤	26.⑤	27.②	28.④
29.①	30.③	31.③	32.③	33.⑤	34.①	35.④
36.⑤	37.①	38.⑤	39.④	40.⑤	41.⑤	42.④
43.②	44.④	45.⑤	46.①	47.②	48.③	49.⑤
50.③	51.⑤					

2005학년도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정답 : 4 3 2 3 1

01번

[정답 맞히기]

④ 여러 개의 삽화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그럼 영감님은 가장 훌륭한 맛도 보았겠거려?”를 보면 ‘신선’, ‘나이 많음’에 이어 ‘훌륭한 맛’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고 있다. 손님들의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민 영감의 재치 있는 답변이 하나의 삽화처럼 나열되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해, ‘여러 개의 삽화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 ‘민 영감’과 사람들이 대화를 나눈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 ② 대화를 통해서 극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이 작품은 대부분 대화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극적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인물의 내면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 이 작품의 대부분은 대화체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인물의 내면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지 않으며,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 ⑤ 간결한 문체로 사건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 이 작품에서는 문체가 간결한 부분과 속도감 있게 사건이 진행되는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02번

[정답 맞히기]

③ 손님들은 당시 정치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 ‘키는 모두 일곱 자가 넘고, 머리는 검은 데다 눈은 빛나지. ~ 마치 이런 벌레가 참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를 보면 민 영감의 비유가 참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대부분의 손님들이 민 영감의 비유적인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드리고 있다. 이는, 손님들이 이 속에 들어 있는 풍자의 의미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탐관오리의 가혹한 수탈에 대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손님들이 딱히 정치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손님들이 당시 정치 현실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정치 현실에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면 민 영감의 비유를 어느 정도는 알아차렸을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민 영감은 학식이 풍부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 ‘그 갯벌을 구워서 성긴 것으로는 수정염을 만들고, 고운 것으로는 소금을 만들지.’를 보면, 민 영감이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알고 있다. 또한 ‘이거야말로 내가 아침저녁으로 늘 먹는 것인데, 어찌 모르겠소? 구기자가 천 년 되면 사람을 보고 짓는다우.’를 보면 약재들에 대해서도 민 영감의 풍부한 지식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 민 영감이 학식이 풍부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민 영감은 신선이나 불사약이 헛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나는 그제야 쌀로 밥을 지어먹고는 죽기를 면했다. ㉔불사약치고 밥보다 나은 게 없는 셈이지 ~ 이제 벌써 일흔이 넘었다우.’를 보면 민 영감은 불사약보다 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불사약이라는 허황된 것 보다는 것을 가까이 있는 밥을 적절하게 먹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명을 오래 유지하는 길임을 민 영감이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민 영감이 신선이나 불사약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민 영감은 당시 현실이 옛사람의 도(道)에서 멀어졌다고 보고 있다.
 → ‘민(閔) 영감은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하고 총명하며 ~ 그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한숨 쉬며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에서 옛 사람의 전기를 읽고 한숨 쉬며 눈물을 흘리는 민 영감의 모습을 보면 당시 현실에 대해 민 영감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민 영감이 ‘당시 현실이 절개와 의로움을 중시하던 옛사람의 도(道)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⑤ 손님들의 질문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중소. 그러나 불사약은 영감님도 결코 못 보았겠조?’ 신선, 나이 많음, 훌륭한 맛에 이어, ‘영원한 삶’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이 더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의 내용들은 모두 속세의 인간들이 소망하는 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따라서 손님들의 질문과 관련해, ‘손님들의 질문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03번

[정답 맞히기]

② 생각을 키우는 『중국사 오천 년』, 오천 년의 경험과 지혜를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 ‘나이 많음’과 관련해 민영감이 ‘토끼와 두꺼비’의 이야기를 손님들에게 들려 준 이유가, ‘중요한 것은 몸의 나이가 아닌 기나긴 인류의 삶 속에 간직되어 있는 삶의 경험과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경험과 지혜를 강조하는 “생각을 키우는 『중국사 오천 년』, 오천 년의 경험과 지혜를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와 같은 ‘도서 광고 문구’는 민영감의 의도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문구이다

04번

[정답 맞히기]

③ ㉔
 → ㉔이로써 본다면 글 많이 읽은 자가 가장 목숨이 긴 거라우.”를 보면 ‘나이 많음’에 대해 참신한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물리적 시간의 흐

름에 기초한 기존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㉔와 관련해 '민 영감의 말하는 바를 전쟁터에서의 장수의 공격에 비유한다면 측면 공격이나 역습에 해당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05번

[정답 맞히기]

① 비분강개(悲憤慷慨)

→ '㉑특히 옛사람의 기이한 절개나 거룩한 발자취를 흠모하여 이따금 의기가 북받쳐서 흥분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한숨 쉬며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에서 당시의 현실에 대해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는 민영감의 심정은, '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북받침'이라는 뜻의 '비분강개(悲憤慷慨)'의 심정이다.

[오답 피하기]

② 맥수지탄(麥秀之嘆)

→ '맥수지탄(麥秀之嘆)'은 '보리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탄식한다는 뜻'이다. 이는 나라가 무너져 예전과 같지 않음을 슬퍼하는 것,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탄식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당시의 현실에 대해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는 민영감의 심정과는 관련이 없다.

③ 망양지탄(亡羊之嘆)

→ '망양지탄(亡羊之嘆)'은 '달아난 양을 찾다가 여러 갈래 길에 이르러 길을 잃었다는 뜻'이다. 이는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서 진리를 찾기 어렵다는 의미와 방침이 많아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게 됨이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당시의 현실에 대해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는 민영감의 심정과는 관련이 없다.

참고 : 망양지탄(望洋之歎)은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감탄한다는 말'이며 다른 사람의 위대함을 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한다는 의미이다.

④ 후생가외(後生可畏)

→ '후생가외(後生可畏)'는 뒤에 난 사람은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이다. 후배는 나이가 젊고 기력이 강하므로 학문을 계속 쌓고 덕을 닦으면 선배를 능가하는 경지에 이를 것이라는 의미이다.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 '후회막급(後悔莫及)'은 '아무리 후회(後悔)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이라는 뜻으로 이미 일이 잘못된 후라서 아무리 뉘우쳐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5 2 5 4

06번

[정답 맞히기]

⑤ 주인공의 반복적 행위를 서술하여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 "'왜 우니, 왜 울어, 왜, 왜. 어서 그치지 못하겠니.'" 하면서도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를 보면 형이 우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형의 순박하고 마음 약한 성격이 구체

화 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② 내적 독백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내적 독백보다는 형과 동생의 대화가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을 지연시키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현재와 과거가 교차 서술 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간접 인용을 활용하여 사건 전개에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 간접 인용이 아닌 형과 동생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07번

[정답 맞히기]

② ㉑은 형제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다.

→ "'난 원래 다리에 ㉑담증이 있는데. 너도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 다야.'" ~ 동생은 놀라 돌아다보았다.'를 보면 말이 없던 동생이 형을 돌아 본 이유는, 형의 말 속에 있는 '담증'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동생은 평소 형의 다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서 형의 다리가 다시 혹은 더욱 심하게 아프다는 얘기를 듣자, 형에 대한 걱정이 커져서 동생은 형을 돌아본 것이다. 따라서 '담증'은 형에 대한 동생의 걱정, 연민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소재이다. 글의 뒷부분의 내용을 참고하면 형은 결국 '담증' 때문에 걸음을 잘 걷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형을 보며 동생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한다. 따라서 이러한 '담증'에 대해 '형제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㉑은 '형'의 동심을 불러 일으킨다.

→ '바깥은 ㉑첫눈이 흠날리고 있었다.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야하, 눈이 내린다, 눈이,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를 보면 형은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다가 갑자기 첫눈을 보고 좋아하고 있다. 형의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첫눈'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㉑첫눈'에 대하여 '형의 동심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㉑은 '형'의 내면 풍경을 보여준다.

→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㉑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었다.'를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초라한 들판은 거칠고 쓸쓸한 느낌을 준다. 들판으로 인해 연상되는 이러한 분위기는 갈수록 심해지는 다리의 고통, 그리고 이것에서 비롯되는 삶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형의 어두운 내면과 유사하다. 따라서 '들판'에 대해 '형의 내면 풍경을 보여 준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㉔은 '형'의 최후를 암시한다.
 → '머칠이 지날수록 ㉔형의 걸음은 더 절룩거리었다. ~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지껄이지 않았다.'에서 평소와는 다른 형의 모습은 형의 아픈 다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형은 자신의 다리의 증세가 갈수록 심각해짐을 알고, 본능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불안해진 것이다. 그리고 글의 뒷부분 내용을 참고하면, 형의 죽음이 형의 걸음걸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형의 절룩이는 걸음'에 대하여 '형의 최후를 암시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㉔은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 '그날 밤, 바깥엔 ㉔함박눈이 내렸다. ~ "형아, 형아, 정신 차려."를 보면 함박눈이 수북하게 내리는 가운데 형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유언에 가까운 말을 한다. 이를 들은 동생은 너무도 안타까워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다. 형과 동생의 슬프고 안타까운 이러한 모습은 쓸쓸하게 하강하며 떨어지는 함박눈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그 비극성이 더욱 강조 되고 있다. 따라서 '㉔함박눈'에 대해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08번

[정답 맞히기]

⑤ ㉔에서는 '부러 큰소리로' 말했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자, '형'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군.
 → '동생은 부러 큰 소리로, "야하, 눈이 내린다." ~ ㉔"....."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꺾하니 굳은 표정이었다.'에서 ㉔는 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평소 같으면 동생이 '눈이 내린다'라고 소리를 치면 분명 형도 따라서 반갑게 소리 쳤을 것이다. 하지만 형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동생에게 유언에 해당하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저히 신이 날 수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동생이 슬픔을 감추고자 거짓으로 밝은 척 하는 것임을 형은 알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동생 또한 거짓으로 밝은 척을 할 정도로 형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에, 대답 없는 형의 마음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시나리오로 각색함에 있어서 ㉔와 관련해 "㉔에서는 '부러 큰 소리로' 말했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자, '형'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㉔에서는 '모두 잠들었을 무렵'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잠든 척 누워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군.
 →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맘이 꽤 좋았었어야이." ㉔"....."에서 형은 아마도 잠이 오지 않아 옆에 있던 동생에게 말을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 잠들었을 무렵'이기에 동생은 형의 말에 적당한 대꾸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㉔ 바로 다음의 '동생은 놀라 돌아보았다'를 보면 동생이 아직 잠이 들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을 시나리오로 각색할 경우 ㉔와 관련해 "㉔에서는 '모두 잠들었을 무렵'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잠든 척 누워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㉔에서는 '놀라 돌아다 보았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걱정스레 '형'을 바라보는 '동생'의 표정을 보여주면 좋겠어.
 → "난 원래 다리에 ㉔담즙이 있는데이. 너두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아야." 하고는 혜죽이 웃었다. ㉔"....."에서 동생은 형이 아프다는 말에도 여전히 반응이 없다. 하지만 바로 뒷 문장의 '놀라 돌아보았다'를 통해, 말없는 동생의 얼굴일지라도 그 표정에 있어서는 형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이 드러났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시나리오로 각색할 경우, ㉔와 관련

해 "㉔에서는 '놀라 돌아다보았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걱정스레 '형'을 바라보는 '동생'의 표정을 보여 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㉔에서는 출다면서 끌어안는 '형'에게 기대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군.
 → '어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그러안으면서, "칠성아, 야하, 흠씩은 출다." ㉔"....."를 보면 형이 출다면서 동생을 끌어안고 있다. 비록 동생이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형에 대한 걱정과 안쓰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기에 출다며 자신을 끌어안는 형에 대해 동생은 속으로 '그래 형 많이 출시'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시나리오로 각색할 경우 ㉔와 관련해, "㉔에서는 출다면서 끌어안는 '형'에게 기대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㉔에서는 아파하는 '형'을 눈물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동생'의 안타까운 눈빛을 보여주면 좋겠어.
 → "저 말이다, 엄만 날 늘 불쌍히 여겼었어야, 잉. 야, 칠성아,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야이." ㉔"....."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를 보면 엄마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형의 말을 듣자 동생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아마도 동생의 눈물은 형의 아픔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직접 형의 아픔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기에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흘리는 눈물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시나리오로 각색할 경우 ㉔와 관련해, "㉔에서는 아파하는 '형'을 눈물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동생'의 안타까운 눈빛을 보여 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09번

[정답 맞히기]

④ 자신을 압박해오는 공포에 무감각한 '형'의 모습은 천진성을 파괴하려는 폭력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 형이 "울지도 말구 모르는 체만 해, 꼭."과 '날 형이라고 글지 마라' 등의 말을 하게 된 이유는 곧 자신에게 닥칠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형의 이러한 예감은 자신을 압박해 오는 죽음의 공포를 정확하게 인지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형에 대해 "자신을 압박해 오는 공포에 무감각한 형의 모습은 천진성을 파괴하려는 폭력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이 작품의 제목은 본연의 순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이 작품의 제목인 '나상'은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뜻이다. <보기>를 참고하면, 형이 '천진난만한 벌거숭이' 인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목인 '나상'은 본연의 순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경비병'은 폭력적 상황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억압하고 길들이는 감시망을 상징한다.
 →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를 보면 평소에 형은 감시병들의 감시 때문에 동생에게 귓속말로 이야기를 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욕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가 억압될 정도로 경비병들의 감시가 극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비병들은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억압과 감시망을 의미한다.

③ '형'과 '동생'이 계속 걸어야만 하는 강제적 상황은 구성원을 획일화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그만큼 걸었음 무던히 왔구만서두. 에에이, 이젠 좀 그만 걸지덜, 무던히 걸었구만서두.”를 보면 경비병들은 포로들을 강제로 계속 걷게 하고 있다. 포로들 개개인이 처한 상황(예를 들어 형처럼 다리가 아픈 상황)에 대한 배려는 드러나지 않는다. 포로들 전부를 똑같이 취급하며 같은 길을 걷게 하는 이러한 강제적 상황은, <보기>를 참고하면 ‘사회 구성원을 모두 동일하게 만드는, 즉 구성원을 획일화하려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⑤ ‘형’이 그를 지켜보던 ‘경비병’의 총에 맞는 것은 감시자의 요구를 수행할 수 없는데 따른 희생을 보여준다.

→ ‘형의 걸음걸이를 주의해 보아 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라졌다.’를 보면 형이 그를 지켜보던 경비병의 총에 맞았다. 경비병이 형에게 총을 쏜 이유는 형이 더 이상 자신의 요구, 힘든 길을 끊임없이 걸어야 하는 요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경비병에게 총을 맞은 형의 모습은 문제 43번 <보기>를 참고하면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이다. 따라서 형의 죽음과 관련해 “형이 그를 지켜보던 ‘경비병’의 총에 맞는 것은 감시자의 요구를 수행할 수 없는 데 따른 희생을 보여 준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2015학년도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B)

정답 : 1 4 4 1

10번

[정답 맞히기]

① 광고 규제의 배경과 유형
- 피해 책임의 주체와 규제의 주체를 중심으로
→ 1문단에서 상업 광고 규제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3문단에서는 광고의 피해 책임 주체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있고, 4~5문단에서는 광고의 규제 주체를 중심으로 유형을 나누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광고 규제의 사회적 영향
- 규제의 도입 배경과 원인을 중심으로
→ 광고의 사회적 영향은 1문단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광고 규제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③ 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의의
- 시대에 따른 소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 시대에 따른 소비자의 역할이 제시문에 나타나있지 않다.

④ 광고 규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 문제점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광고 규제의 역기능은 언급되지 않았고, 오히려 광고의 역기능에 대해서만 제시문에서 언급되고 있다.

⑤ 광고 규제에 대한 대립적 시각
-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 극대화 방안을 중심으로
→ 광고 규제에 대한 대립적 시각이 나타나있지 않다. 광고 규제를 반대하는 시각은 찾아볼 수가 없다.

11번

[정답 맞히기]

④ 첨단 기술을 강조한 상품의 광고일수록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
→ 3문단에서 ‘상품에 응용된 과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라는 내용이 나타나있다. 이를 통해 위의 선지는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광고 주체의 자율 규제가 잘 작동될수록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의 역할도 커진다.
→ 5문단에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있다. 이를 통해 자율 규제가 잘 작동될수록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정도가 클수록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필요성이 약화된다.
→ 1문단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고 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정도가 커진다면 규제의 필요성이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

③ 시장 독과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약화되고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이 부각되었다.
→ 3문단에서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위의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광고의 기만성을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 그 이유는 소비자에게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 2문단에서 ‘소비자는 이성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있다. 이를 통해 위의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번

[정답 맞히기]

④ ㉠보다 ㉡을 따를 때 정부가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
→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을 따르기 위해 법적 규제가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 것이므로 정부에게 입증할 책임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선지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보다 ㉢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 ㉢은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기업에게 있으므로 ㉢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② ㉠보다 ㉢이 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한다.
→ 3문단에서 ㉢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이 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보다 ㉡을 따를 때 광고 표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 ㉡을 따른다면 광고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결론을 맞을 수 있다.

⑤ ㉠과 ㉢은 모두 광고의 역기능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다.
→ ㉠과 ㉢은 모두 광고가 사회 전체에 폐해를 낳는 경우도 있기에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될 때 간주되는 원칙이었다. 따라서 둘 다 광고의 역기능을 전제하는 것이다.

13번

[정답 맞히기]

① 소비자 규제는 소비자들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을 지지하겠군.
→ <보기>의 소비자 규제는 소비자야말로 불공정하거나 불건전한 광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점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보다 기업에게 책임을 부가하는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을 지지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② 소비자 규제는 광고 규제의 효과 면에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보완한다는 의의가 있군.
→ <보기>에서 소비자 규제는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했으므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보완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소비자 규제의 주체는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기 때문에 자율 규제의 주체와 긴장하는 관계에 있겠군.
→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는데, 광고의 주체는 기업이다. 제시문에 따르면 자율 규제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소비자 규제의 주체는 자율 규제의 주체와 긴장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소비자 규제는 광고 주체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규제와 공통점이 있군.
→ 4문단에서 법적 규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을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규제와 법적 규제는 광고 주체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견제하는 기능으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소비자 규제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군.
→ <보기>에서 소비자 규제는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그릇된 정부의 유통 자체를 문제 삼는다고 했으므로,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 5 2 1 2

14번

[정답 맞히기]

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중심 화제의 성격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 놀이를 고대, 자본주의 사회, 디지털 혁명 이후의 사회로 가면서 성격의 변화를 서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분석도 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두 개념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고 있다.
→ 두 개념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장단점 비교와 우열을 가리고 있지도 않고, 오직 놀이라는 핵심어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② 필자의 관점을 명시한 후 다른 관점과 비교하고 있다.
→ 필자의 관점만 명시되어있고, 다른 관점은 나타나지도 비교하고 있지도 않다.

③ 다양한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개념의 타당성을 따지고 있다.
→ 경험적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④ 서로 다른 두 이론을 통합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이론에 관해 제시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이론을 통합해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지도 않다.

15번

[정답 맞히기]

② 고대 사회에서는 희생 제의를 통해 자연을 유용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 희생 제의의 목적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희생 제의는 자연을 훼손한 인간이 신 앞에서 죄를 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자연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 희생 제의를 했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오답 피하기]

①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 제의와 집단적 놀이가 결합되어 있었다.
→ 1문단에서 '신에게 제의를 올리며 놀이를 즐겼다'라고 나타나있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종교적 제의와 집단적 놀이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휴식이 상품 소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 2문단에서 '이 휴식 시간마저도 대부분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나타나있다. 즉, 휴식이 소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자본주의 사회에서 놀이가 상품화되면서 놀이를 즐기는 방식도 변화되었다.
→ 3문단에서 '놀이가 상품 소비의 형식을 띠면서 놀이를 즐기는 방식도 변화한다.'라고 나타나있다.

- ⑤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놀이의 주체가 되려는 젊은 세대의 욕구 충족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 4문단에서 '젊은 세대는 놀이의 주체가 되려는 욕구가 크다. 인터넷은 그런 욕구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준다.'라고 나타나있다.

16번

[정답 맞히기]

- ① ㉠은 쌍방향적 놀이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군.
→ ㉠은 A씨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쌍방향적 놀이 활동은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주체적으로 직접 활동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② ㉡은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겠군.
→ 2문단에서 노동 시간을 축소하고 휴식 시간을 늘렸는데, 그 이유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일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축구 영상을 보게 허락하는 것은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 ③ ㉢은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한 예라고 볼 수 있겠군.
→ A씨가 직접 참가해서 축구 시합을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은 놀이의 구경꾼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A씨가 프로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으므로 놀이의 구경꾼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⑤ ㉤은 친구들 사이의 연대감을 생기게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마지막 문단에서 쌍방향적 활동은 참여자들 사이에 연대감이 형성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의 활동은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적 활동이므로 위의 선지는 적절하다.

17번

[정답 맞히기]

- ② 청소년의 미래는 바로 나라의 미래이다.
→ 위 제시문에서 '바로'는 '다름이 아니라 곧'의 의미를 지녔다. 이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은 위의 선지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집에 도착하거나 바로 전화해 주십시오.
→ 위의 선지의 '바로'는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③ 마음을 바로 써야 복을 받는다고들 한다.
→ 위의 선지의 '바로'는 '사리나 원리,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④ 우리는 국기를 바로 다는 방법을 배웠다.
→ 위의 선지의 '바로'는 '도리, 법식, 규정, 규격 따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⑤ 학생들은 모자를 바로 쓰고 단정히 앉았다.
→ 위의 선지의 '바로'는 '비뺄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이 곧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13학년도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정답 : 1 5 4 1

18번

[정답 맞히기]

- ① 두 견해의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명령적 위임 방식과 자유 위임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을 각각 2문단과 3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두 견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두 견해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되고 있지 않다.
- ③ 두 견해가 서로 인과 관계에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 두 견해의 인과 관계 여부를 논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두 견해의 공통점을 부각하여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두 견해의 공통점 보다는 차이점을 부각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한 견해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른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 한 견해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고, 어느 특정 견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19번

[정답 맞히기]

- ⑤ ㉠ : A는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가 타당하더라도 X에 찬성할 수 있다.
→ ㉠의 견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보다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도록 한다.'고 말한다. 즉, ㉠의 견해에서 A는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가 타당하더라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 X에 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 ① ㉡ : A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때는 X에 찬성할 수 있다.
→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이 들 때 X에 찬성하는 것은 ㉡의 견해이다.
- ② ㉢ : A는 지역구 주민의 의사가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면 기권해야 한다.
→ ㉢의 견해는 A는 지역구 주민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A는 기권하지 말고 지역구 주민의 의사처럼 X에 찬성해야 한다.
- ③ ㉣ : A는 반대하기로 선거 공약을 했다면 X에 반대해야 한다.
→ ㉣은 선거 공약을 반대로 했어도 국회의원 소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A의 생각이 X에 반대와 다르다면 굳이 반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④ ㉠ : A는 소속 정당의 당론이 찬성 의견이라면 X에 찬성해야 한다.
 → 3문단에서 자유 위임 방식은 소속 정당의 지시에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20번

[정답 맞히기]

④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차별 없이 대표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에 해당한다.
 → ㉠에 해당하는 것은 대표자 선출권이 아니라 대표자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다. 대표자 선출권은 3문단에도 나타나있듯이 자유 위임 방식에 좀 더 맞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자유 위임 방식을 채택한 국가에서 ㉠의 도입은 선택적이다.
 → 자유 위임 방식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을 도입할 수 있다. 즉, ㉠의 도입은 선택적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법률안 등을 국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제도는 ㉠에 해당한다.
 → 개별 사안에 대해 국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제도는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로 볼 수 있다.
- ③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을 도입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 국가 전체의 이익 보다 국민들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기에 생긴 현상이므로,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 나타날 수 있다.
- ⑤ ㉠의 도입은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 마지막 문단에서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되어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나타나있다.

21번

[정답 맞히기]

⑤ 과부족(過不足)이 없이 꼭 들어맞다.
 → '과부족'은 '한도에 넘거나 모자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오답 피하기]

① 참석자의 과반수(過半數)가 그 안건에 찬성하였다.
 → 위 선지의 '과반수'는 '절반이 넘는 수'를 의미한다.

② 수도권에 인구가 과다(過多)하게 집중되고 있다.
 → 위의 선지의 '과다'는 '너무 많음'을 의미한다.

③ 과도(過度)한 지출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 위의 선지의 '과도'는 '정도에 지나침'을 의미한다.

④ 과소비(過消費)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 위의 선지의 '과소비'는 '분수에 넘치게 많이 써서 없앴'을 의미한다.

2006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 4 1 3 5 5

22번

[정답 맞히기]

④ 주가 변화의 원리를 중심으로 상이한 관점을 대비하고 있다.
 → 이 글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제시된다. 첫째로 '기본 모델'에서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이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반면에 둘째로 '자기참조 모델'에서는 주식의 가격이 증권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 즉 인간의 주관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이 글은 주가 변화의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상이한 관점들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기업과 증권시장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 이 글에서는 주가 변화의 원리를 중심으로 두 가지 관점을 대비하고 있다. 기업과 증권시장의 관계를 분석하지는 않는다.
- ② 증권시장의 개념을 단계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 두 번째 문단에 증권시장의 개념이 제시되어있지만, 단계적으로 규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은 선지이다.
- ③ 사례 분석을 통해 정통 경제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이 글에서는 주가 변화의 원리를 중심으로 두 가지 관점을 대비하고 있다. 사례 분석을 통해 정통 경제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⑤ 증권시장의 기능을 설명한 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 이 글에서는 주가 변화의 원리를 중심으로 두 가지 관점을 대비하고 있다. 증권시장의 기능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23번

[정답 맞히기]

① 증권시장은 객관적인 기준이 인간의 주관성보다 합리적임을 입증한다.
 → 첫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기준을 중시하는 **기본 모델**은 주가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인간의 주관성을 중시하는 **자기참조 모델**은 주가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증권시장의 객관적인 기준이 인간의 주관성보다 합리적임을 보여준다는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다르다.

[오답 피하기]

② 정통 경제 이론에서는 가격의 변화가 객관적인 근거를 갖는다고 본다.
 → 첫 번째 문단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가격의 변화가 인간의 주관성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는다는 가설이 정통 경제 이론의 핵심이다.

③ 기본 모델의 관점은 주가가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증권시장은 주가를 통해 경제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④ 증권시장의 여론을 모방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주가가 변동스런 등락을 보이기도 한다.
→ 네 번째 문단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주가가 상승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도 투자자들은 증권시장의 여론에 따라 주식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스런 등락을 보일 수 있다.

⑤ 기본 모델은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 기업의 내재적 가치에 주목하지만 자기참조 모델은 증권시장의 여론에 주목한다.
→ '기본 모델'에서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이 '기업의 내재적 가치'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반면에 '자기참조 모델'에서는 주식의 가격이 증권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 즉 인간의 주관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24번

[정답 맞히기]

③ '증권시장이 내놓은 분석'은 기본 모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 기본 모델의 관점은 주식의 가격이 기업의 내재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보기>에 제시된 사례는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가 없다. '증권시장이 내놓은 분석'은 사람들이 기업의 내재적 가치보다는 '앞으로 전자 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증권시장의 여론에 따라 주식을 거래했음을 알게 하므로 자기참조 모델의 관점에서 제시한 분석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A가 B보다 기본 가치가 큰 업체라고 볼 수 있다.
→ A 기업은 온라인 판매 경쟁 업체 B보다 400배가 넘는 총 매출을 올렸다. 따라서 A가 B보다 기본 가치가 큰 업체라고 볼 수 있다.

② 증권시장이 '자율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예이다.
→ 주식의 기본 가치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시장의 여론에 따라 주식을 거래했음을 보이는 예이다. 따라서 증권시장이 '자율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④ 증권시장 참여자들은 기본 가치보다는 증권시장의 여론을 따랐을 것이다.
→ 주식의 기본 가치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시장의 여론에 따라 주식을 거래했음을 보이는 예이다.

⑤ '이처럼 기묘한 상황'은 주가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을 보여 준다.
→ 주식의 기본 가치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시장의 여론에 따라 주식을 거래했음을 보이는 예로, 주가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25번

[정답 맞히기]

⑤ 향배(尙背)
→ "가격이 여론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은 "가격은 여론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뜻이므로 ㉠은 "가격이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다."라는 문장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향배(尙背)'는 '쫓는 것과 등지는 것'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되어 가는 추세나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이르는 말이다.
*반향 : 어떤 사건이나 발표 따위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 일어나는 반응.
*비준 :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 동의하는 절차.
*상충 :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남.
*진퇴 :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남.

26번

[정답 맞히기]

⑤ 투자자들이 목적을 통해 자본의 가격을 산출해 내는 제도적 장치이다.
→ '자기참조 모델'에서는 투자자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여론을 모방하여 주식을 산다고 본다. 그 모방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다수의 비전'인 '목적'에 의해 인정된다. 증권시장은 이러한 목적을 조성하고 유지해가면서 경제를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따라서 증권시장은 '투자자들이 목적을 통해 자본의 가격을 산출해 내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경제의 원리가 구현되는 공간이다.
→ 자기참조 모델'에서는 투자자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여론을 모방하여 주식을 산다고 본다. 주가가 상승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도 투자자들은 증권시장의 여론에 따라 주식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므로,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경제의 원리가 구현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기본 가치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금융시장이다.
→ '자기참조 모델'에서는 투자자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여론을 모방하여 주식을 산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본 가치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금융시장이라 볼 수 없다.

③ 객관적인 미래 예측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금융시장이다.
→ '자기참조 모델'에서는 투자자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여론을 모방하여 주식을 산다고 본다. 주가가 상승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도 투자자들은 증권시장의 여론에 따라 주식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므로, 객관적인 미래 예측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기업의 주가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일치시켜 나가는 공간이다.
→ '자기참조 모델'에서는 투자자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여론을 모방하여 주식을 산다고 본다. 기업의 주가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일치시켜 나가는 공간은 '기본 모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정답 : 2 4 1 3

27번

[정답 맞히기]

② (나) : 기존의 연구 방법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며 화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 문단 (나)는 용이 기존의 연구 방법에 추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화제를 구체화하고 있을 뿐, 기존의 연구 방법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았다.

[오답 피하기]

- ① (가) : 대상이 되는 연구 방법의 진행 과정과 그 한계를 서술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단어 연상법 연구 방법의 진행 과정과 한계를 서술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①은 적절한 선지이다.
- ③ (다) : 기존의 연구자들이 간과했던 새로운 사실을 찾아낸 용의 실험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
→ 용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간과했던 피실험자의 정서를 찾아내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따라서 ③은 적절한 선지이다.
- ④ (라) : 용의 실험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 용은 응답자의 심라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두 가지 결론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④는 적절한 선지이다.
- ⑤ (마) : 새롭게 드러난 심리적 개념을 하나의 용어로 정리하며 논의를 마무리 짓고 있다.
→ 새롭게 드러난 심리적 개념, 콤플렉스를 도입하여 논의를 마무리 짓고 있다. 따라서 ⑤는 적절한 선지이다.

28번

[정답 맞히기]

④ 고희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림을 그렸겠군.
→ 고희가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기억과 관련한 그의 콤플렉스를 창조적 에너지로 활용하여 자기만의 것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고희의 그림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고희에게는 콤플렉스가 생산적 에너지로 작용하였군.
→ <보기>에 따르면 고희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그의 작품 속에서는 자기만의 것에 집착했던 그의 성향이 드러난다. 따라서 고희에게는 콤플렉스가 생산적 에너지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고희의 독창적 그림 세계는 어릴 적 체험과 관련이 있겠군.
→ <보기>에 의하면 고희는 죽은 형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죽은 첫 아들과 고희를 동일시하여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 부모님에 의해, 그리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고희의 간절한 소망이 독창적 그림 세계를 형성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 ③ 고희의 부모는 고희의 콤플렉스를 형성하는 데 큰 작용을 하였군.

→ <보기>에 의하면 고희는 죽은 형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죽은 첫 아들과 고희를 동일시하여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 부모님이 고희의 콤플렉스를 형성하는 데 큰 작용을 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 ⑤ 고희에게 단어 연상법을 실시했다면 '형'이라는 단어에서 머뭇거렸겠군.
→ (나)문단을 통해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나)문단에서 피실험자가 잊고 있었던 기억이 실험 과정에서 되살아나 머뭇거린 것처럼, 고희의 콤플렉스에는 '형', '아버지' 등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니 해당 단어에 대한 반응이 달랐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9번

[정답 맞히기]

- ① 응답 시간 / 단어
→ 용이 단어 연상법을 통해 밝힌 것은 특정 단어에 대한 반응 시간이다. 따라서 시간과 단어가 그래프에 필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에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양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것은 특정 단어에 대한 응답 시간의 차이에 따른 것이니, 응답 시간이 될 수 있다. ㉡에는 단어 연상법에 따라 제시되는 단어가 나와야한다.

30번

[정답 맞히기]

- ③ 추궁(追窮)하기에는
→ ㉡의 '따진다'는 '판별하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정도가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이다.

*측정(測定) :

- 1.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의 크기를 잴. 기계나 장치를 사용하여 재기도 한다.
- 2. 헤아려 결정함.

*수반(隨伴) :

- 1. 붙좃아서 따름.
- 2. 어떤 일과 더불어 생김.

*도입(導入) :

- 1. 기술, 방법, 물자 따위를 끌어 들임.

*입증(立證) :

[명사]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정답 : 3 3 5 1

31번

글의 내용에 따르면, 초전도체의 특징은 완전 전도성과 완전 반자성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전기저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손실 없이 전기를 수송할 수 있으며, 자기장이 전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정답 맞히기]

- ③ 전기 저항을 이용하여 열을 내는 전열 기구의 주요 재료로 초전도체를 사용하면 열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거야.
→ 초전도체를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기 저항을 이용하여 열을 낼 수 없다. 따라서 전기저항을 이용하는 전열 기구의 주요 재료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초전도체의 임계온도가 높을수록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쉬울 거야.
→ 마지막 문단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을 만들고 응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 ② 오네스가 초전도 현상을 발견한 것은 기체인 헬륨을 액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아야겠군.
→ 두 번째 문단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오네스는 기체 헬륨을 압축하여 절대온도 4도의 액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를 이용하여 수은의 온도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초전도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 ④ 금속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들이 쌍을 이루어서 금속 이온과의 충돌을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겠군.
→ 세 번째 문단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초전도 상태에서 전자들은 들쭉 짝을 지은 쿠퍼쌍을 이룬다. 쿠퍼쌍은 금속 이온의 방해에 관계없이 액체처럼 흐를 수 있어 전기저항이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금속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들이 쿠퍼쌍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⑤ 자기장의 반작용을 이용해서 레일 위를 떠서 달리는 자기 부상 열차의 원리는 초전도체의 완전 반자성이라는 특성과 관계 깊을 거야.
→ 네 번째 문단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완전 반자성의 반발 작용을 이용하면,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두어 공중에 떠오르게 하거나 반대로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레일 위를 떠서 달리는 자기 부상 열차는 초전도체의 완전 반자성의 특징과 관계 깊다고 추론할 수 있다.

32번

[정답 맞히기]

- ③ 과제를 제시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 글의 처음 부분에서 과제를 제시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논의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물음을 던짐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한다.
→ 첫째 문단에서는 초전도 선박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②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내용 전개에 바탕으로 삼는다.
→ 둘째 문단에서는 초전도 현상의 의미를 설명하여 내용 전개에 바탕으로 삼고 있다.
- ④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여 이해를 돕는다.
→ 셋째 문단에서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는 BCS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⑤ 대상이 응용되는 사례들을 열거하여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
→ 다섯째 문단에서는 초전도체가 실제로 응용되는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33번

[정답 맞히기]

- ⑤ A 지점에서 모든 초전도물질의 저항과 온도는 동일할 것이다.
→ 그래프의 A 지점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임계온도이므로, A 지점에서 모든 초전도물질의 저항과 온도가 동일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A 지점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임계온도이다.
→ 그래프의 A지점은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임계온도이다.
*임계온도: 어떤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온도
- ② 이 물질은 A 지점에서 완전 반자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 초전도체의 특징은 완전 전도성과 완전 반자성의 두 가지이다. 이 물질은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A지점에서 완전 반자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 ③ A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온도와 저항이 대체로 비례한다.
→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지점에 이르기까지는 온도와 저항이 대체로 비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 ④ 이 물질의 전자들은 A 지점에 이르러 '쿠퍼쌍'을 이룰 것이다.
→ 초전도 상태에서 전자들은 들쭉 짝을 지은 쿠퍼쌍을 이룬다. 따라서 이 물질의 전자들은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A지점에 이르러 쿠퍼쌍을 이루는 추론은 적절하다.

34번

[정답 맞히기]

- ① 전류를 흘려 주었을 때뿐만 아니라 끊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전류가 흐를 것이다.
→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손실 없이 전류를 수송할 수 있다. <보기>에서 말하는 고리는 이러한 초전도체로 된 전선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므로, 이 고리에 전류를 흘리면 전혀 손실이 없이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또한 고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류를 흘려 준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전류가 흐를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전류를 흘려 주었을 때뿐만 아니라 끊은 이후에도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을 것이다.
→ <보기>에서 말하는 고리는 이러한 초전도체로 된 전선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므로, 이 고리에 전류를 흘리면 전혀 손실이 없이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또한 고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류를 흘려 준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전류가 흐를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③ 전류를 처음 흘려 준 순간에만 전류가 흐르고 그 이후부터는 전혀 흐르지 않을 것이다.
 → <보기>에서 말하는 고리는 이러한 초전도체로 된 전선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므로, 이 고리에 전류를 흘리면 전혀 손실이 없이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또한 고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류를 흘려 준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전류가 흐를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④ 전류를 흘려 준 순간에는 강한 전류가 흐르다가, 끊고 난 후에는 매우 약해질 것이다.
 → <보기>에서 말하는 고리는 이러한 초전도체로 된 전선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므로, 이 고리에 전류를 흘리면 전혀 손실이 없이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따라서 전류를 흘려 준 순간과 끊고 난 후의 전류의 세기는 동일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⑤ 전류를 흘려 줄 때는 약한 전류가 흐르다가 끊고 난 후부터는 강한 전류가 흐를 것이다.
 → <보기>에서 말하는 고리는 이러한 초전도체로 된 전선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므로, 이 고리에 전류를 흘리면 전혀 손실이 없이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따라서 전류를 흘려 준 순간과 끊고 난 후의 전류의 세기는 동일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2004학년도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정답 : 4 5 1 5 4

35번

[정답 맞추기]

④ 현재에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내 님을 그리수와 우니다니
 니마 나를 험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가)에서 화자는 님을 그리워하고 있으나 님이 자신을 잊은 것 같아 자신을 돌아봐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가)에서는 님 곁에 가고 싶으나 가지 못 해 현 상황에 만족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나)에서는 보고 싶은 사람이 못 오는 것을 시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나 못 보는 현실에 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이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다)에서는 냄새나는 누비바지를 입고 빈약해진 음식과 의복을 보며 현실상황을 부정하고 있어 미친 듯이 웃는 것으로 보아 (다)의 화자 역시 현실에 만족 못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현실에 대해 냉소하고 있다.
 → '냉소하다'라는 단어를 모르면 네이버 사전을 이용해 의미를 찾도록 하자.
 → (가)에서는 님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것만 서술되어 있고 자신의 현실에 대한 비웃음, 냉소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 (나)에서는 기다리는 대상이 안 오는 상황에서 대상이 안 오는 이유를 짐작적으로 나열하면서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대상에 대한 작은 책망을 담고 있다.
 → (다)에서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어이없어 하며 웃음이 나온다고 했다. 이를 현실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라고는 볼 수 있으나 냉소적인 태도로 보기에는 힘이 들 것이다. 왜냐하면 냉소적 태도에는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야 하는데 지문에서 이것이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실에 대한 냉소를 파악하고 싶다면 다음 기출을 자세히 보자.**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B)]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밑에서 더께가 앉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마는,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들어 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 염상섭, 『만세전』 -

② 상대방을 원망하고 있다.
 → 대상에 대한 원망이 존재한다고 하면 지문에서 어느 원인에 의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야 한다.
 → (가)에서는 님을 그리워하고 있으나 님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있지 않다. (나)에서는 '한 해도 ~ 날 와 볼 하루가 없으랴'라는 말을 통해 날 보러 안 오는 대상에 대한 약한 원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에서는 농부라는 외부 대상이 드러나 있으나 이에 대해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원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부당한 현실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현실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며 화자는 이해 비판적인, 저항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나 위의 해설에서도 보듯이 세 화자 모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농가의 좋은 흥미 저런 줄 알았다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에 힘쓸 것을
 백운이 즐기는 줄 청운이 말 양이면
 꽃 탐하는 벌나비 그물에 걸렸으랴

→ (다)에서는 자신이 과거에 공명을 탐했었고 이에 대한 회한을 느끼며 농사에 힘쓸 것을 이라는 말을 하면서 과거의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화자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있지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36번

[정답 맞추기]

⑤ (가), (나)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말을 거는 듯한 효과를 내고 있다.
 (가)
 버기시더니 뉘러시니잇가
 니미 나를 험마 니즈시니잇가

(나)
 어이 못 오던가

→ (가), (나) 모두 임의의 청자를 상정해서 의문문을 사용해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실현시킴으로써 청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효과를 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대구와 대조를 통해 울동감을 높이고 있다.
 → 대구는 유사한 통사구조(문장)의 반복이고 대조는 어느 기준에서 다른 두 대상을 비교하는 것을 일컫는다. (가)에서는 이런 대구와 대조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을 위의 서술된 개념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가)는 설명적 진술을 통해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
 → 설명적 진술은 어느 대상의 속성 혹은 대상에 대한 서술을 자세히 하는 것이다. (가)의 화자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만 주장할 뿐 자신의 억울한 근본적 이유 혹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것을 설명적 진술을 통해 드러내진 않는다.

③ (나)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 성, 담, 뒤주, 궤, 자물쇠는 모두 화자와 어느 대상을 못 만나게 하는 장벽으로 비유되고 상징으로 쓰이는 것을 추론할 수 있으나 이 비유들이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는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 (나)는 자연물에 의탁하여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산 접동새 난 이슥흐요이다
 → (가)에서 화자는 접동새를 자신과 같다는 것으로 자신의 슬픈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고전시가에서 접동새는 '애상적' 심상을 환기할 수 있는 객관적 상관물로 자주 사용되므로 이를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나)에서는 그런 기능을 도와주는 자연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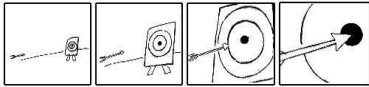
37번

[A]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必字形)으로 결박하여 넣고 쌍배목(雙排目) 결쇠에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 있더냐

[정답 맞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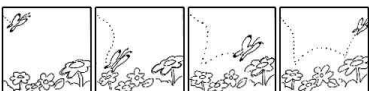
①



→ [A]에서 시가 진행되면서 '너'가 성, 담, 집, 뒤주, 궤에 갇혀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필자형으로 결박당하고 궤에 자물쇠가 걸려있다고 진술하는 것을 통해 '너'가 화자가 있는 곳으로 못 오는 이유를 화자가 점층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담→집→궤의 진행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면서 화자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초점화가 진행되고 있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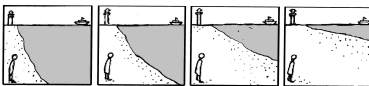
[오답 피하기]

②



→ [정답 맞히기] 참조
 → 나비가 꽃에 내려앉고 다시 떠나는 모습으로 보아 그림의 상황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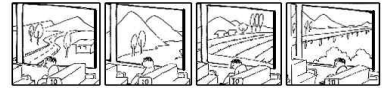
→ 물이 어느 대상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다. 이는 시의 초점이 한 대상으로 초점화 되고 있는 것에 대조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 [정답 맞히기] 참조
 →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다. 이 역시 시간의 순행적 흐름이 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 [정답 맞히기] 참조
 → 기차가 어느 곳을 지나가는 사진이다. 이 역시 시간의 순행적 흐름이 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38번

[정답 맞히기]

⑤ 공명(功名)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작가가 유배에서 풀려나면 벼슬길에 다시는 나아가지 않겠군.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에 힘쓸 것을

→ 다음 문장을 보고 화자가 공명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공명을 탐치 않겠다는 회한이 공명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고 바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자신을 '벌나비'에 빚든 것은 자신의 죄를 유혹에 약한 인간 본성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 시에서 벌나비는 꽃을 탐하다가 그물에 걸리고 만다. 이 비유를 화자의 상황으로 되돌리면 공명(꽃)을 탐하다가 죄를 지은(그물에 걸린) 자신(벌나비)의 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비유는 자신의 잘못이 자신의 의도적인 이유가 아닌 유혹(꽃)에 약한 자신(인간)의 본성의 탓으로 돌리려는 여지가 보이므로 선지는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② 죄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유배지에서의 고난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겠군.
 유배가사는, 작가가 유배지에서 풀려날 목적으로 임금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지은 것

→ 보기에 따르면, 임금에게 자신이 충분한 벌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처지를 과장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인식한 것은, 유배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전달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겠군.
 → ②번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미친 사람이라고 드러내면서 자신이 이런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임금에게 드러내어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기대하고 서술했을 가능성도 있다.

④ '그물에 걸렸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작가가 죄를 지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겠군.
 → 그물에 걸린 것은 자의적인 행동이 아닌 타의적인 행동이다. 따라서 그물에 걸린 것, 즉 자신이 어떤 유혹에 의해 죄를 짓다가 걸린 것으로 변명하고 자신에게 죄를 지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부분을 서술했다고도 볼 수 있다.

39번

[정답 맞히기]

④ ㉘: 정신적, 물질적인 여유를 지닌 대화 상대자이다.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에 힘쓸 것을

→ 객관적인 근거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거지!'하고 찍을 선지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 선지에 근거를 댈다면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 공명을 탐치 않고 농사에 힘쓸 것을
공명은 사회적으로 명예와 부를 안겨주는 수단인데 이를 버리고 농사에 힘
쓸 것을 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농사는 사회적인 명예와 부와는 거리
가 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 화자의 결백과 심적 상황을 암시한다.
→ 자신의 억울함을 '잔월효성도 알 것이다'라고 서술한 것으로 보아 화자 자
신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② ㉡: 화자와 '너'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을 의미한다.
→ 성은 화자와 너 사이의 길을 막는 존재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화자와 너 사
이에 놓여 있는 장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 ③ ㉢: '너'에 대한 그리움과 가벼운 책망이 공존한다.
→ 다음과 같은 서술을 통해, 화자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과 '너'가 오지
않음으로 인한 너에 대한 가벼운 원망이 드러난다.
- ⑤ ㉤: 안타까움과 후회의 정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 ㉠ 이전에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에 힘쓸 것을'이라는 서술 이후에 ㉠이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것으로 나와 있으므로 ㉠ 역시 전 문장의 취지에
맞게 이어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2006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언어추론

정답 : 5 5 4

40번

[정답 맞히기]

⑤ 당시의 세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도회적 삶의 애환을 그려내고 있다.
→ 세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면 **당시의 상황을 심상을 통해 서술함으로써**
현장감과 사실감을 전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지문은 세태를 드러내기 보
다는 자신이 어느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과 같은 개인의 관심사를 보여주
고 세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보단 '멕시코', '모로코'와 같은 바의 이름
을 통해 지문의 배경이 한국에 있지 않다는 '낯설음'을 보여준다.

[오답 피하기]

- ① 위트와 유머를 구사하여 사건의 의미를 희화화하고 있다.
에라 자빠져서 어디 오나 안 오나 기다려 보자꾸나.
- 사건의 희화화가 발생하려면 사건의 어떤 부분을 웃기게 만들어야 한다.
어조나 말투 혹은 행동이 우스꽝스러워야 하는데, 위와 같은 부분에서 아
내의 물건을 버리는 것에 대해 주저할 때 자신의 그런 모습을 '에라 자빠
져서'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우스꽝스럽게 나타냈으므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② 독백적 어조를 통해 작가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여기서 **독자와 작가의 거리는 '심리적' 거리**를 의미한다.
몽롱한 가운데서 나는 이 땅을 떠나리라 생각했다.
나는 그를 그의 하숙까지 데려다주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 다음 부분을 통해 서술자가 청자를 상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건
네는 방식을 통해 서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술자가 감정을
직접 드러내어 독자가 서술자의 심리를 알게 하면서 독자와 서술자의 심
리간 거리가 줄어든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③ 간결하고 호흡이 빠른 문체를 통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우선 간결하고 호흡이 빠른 문체는 서술되는 문장의 평균적인 길이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다. 만약 소설에서 2~4줄 가량의 문장이 연속적으로 제시되
었다면 '간결한 문장'이 지문에서 주요하게 쓰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위
지문에서는 그런 것이 드러나있지 않으므로 간결한 문체를 썼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순영은 광주로 갔다.
(중략)
반년 만에 돌아온 순영이 돌아서서 침을 탁 뱉는다.

→ 결국 이런 문체를 통해서 서술자는 시간의 흐름(반년)을 매우 빠르게 진행
시키고 있다. 따라서 선지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④ 반어적 상황 설정으로 인물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이런 **송 군의 불행을 이용하여 내 슬픔을 입증시켜** 보느라고 실로 천만
어의 단자(單字)를 허비했다. 순영의 얼굴에는 봄다운 흥조가 돌기 시작하
는 것 같았다. 나는 어느 틈엔지 **나 자신의 위치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다.**

→ 이 부분을 독해하지 못하면 결국 틀리는 문제였다. 나는 순영을 사랑했으
나 순영은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이상은 순영에게 송 군의 처지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게 하려고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순영의 마
음은 송 군에게 향하고 만다. **원래 예상되었던 결과와 다른 전개로 흘러나
가는 반어적인 상황**을 통해 인물의 기대와 현실에 차이를 보여주므로 선
지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41번

[정답 맞히기]

⑤ 순영은 번민에 사로잡힌 송 군에게 연모의 정을 품고 있다.
→ 위 문제의 해설을 다시 적어보면 나는 순영을 사랑했으나 순영은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이상은 순영에게 송 군의 처지를 이용하여 자신에
게 연민을 느끼게 하려고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순영의 마음은 송 군에게
향하고 만다. 따라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순영은 아내와의 불화에 빠져 있는 '나'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년 만에 돌아온 순영이 돌아서서 **침을 탁 배알는다.** 반년 동안 외출했던
아내를 말 한마디 없이 도로 맞는 내 얼굴 위에도-
(중략)
그러나 **한번 돌아선 순영의 마음은-**

→ 반년 동안 외출했던 아내를 도로 맞은 나에게 순영은 침을 탁 뱉는다. 이
를 통해 나에게 연민이 아닌 혐오의 감정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것이 확실치 않다면 뒤의 부분에서 순영의 마음이 나에게서 돌아
섰다는 것(한번 돌아선 순영의 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선지의 내용은 적
절하지 않다.

② 아내는 가솔과 귀가를 반복함으로써 '나'와 순영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
→ 지문에서 아내가 가솔한 이유 또 귀가를 한 이유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
지 않다. 또한 아내는 나와 순영의 관계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알아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나와 순영이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추
론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송 군은 사랑의 갈망과 현실의 제약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송 군 방 밑마을을 열었을 때 **자살하고 싶은 송 군의 고민은 사실화하여** 우리들 눈앞에 놓여 있었다.

아로날 서른여섯 개의 공동 곁에 적은 **이상의 주소와 순영의 주소가 적힌 종잇조각이** 한 자루 칼보다도 더 냉담한 촉각을 내쏘으면서 **무엇을 재촉하는 듯이** 놓여 있었다.

- 근거를 추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선지이다.
- 우선 지문의 마지막에서 송 군의 '자살하고 싶은 고민'이 현실화 되었다, 즉 송 군이 자살한 현장을 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상의 주소와 순영의 종잇조각에게서 무엇을 재촉하는 듯이 놓여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순영과 이상을 재촉, 두 사람의 존재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여기서 순영의 존재에 대한 갈망은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갈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송 군은 사랑의 갈망과 현실의 제약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와 순영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애증의 관계이다.

- 반면 동안 외출했던 아내를 도로 맞은 나에게 침을 탁 뱉는 순영의 모습을 통해 나에게 연민이 아닌 혐오의 감정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와 순영은 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어지는 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42번

[정답 맞히기]

④ ㉔: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반응에 흡족해하였다.

- 나는 순영을 사랑했으나 순영은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이상은 순영에게 송 군의 처지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게 하려고 하였는데 여기서 '나의 위치를 잃어 버리고' 내 자리를 되찾았을 때, 순영은 이미 송 군에게 연민의 감정을 가져버린다. 여기서 나의 위치를 잃었다는 것은 나의 의도를 잊은 채 진심으로 송 군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㉓: '나'와 순영의 관계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 인색한 원근법을 통하여 나는 바라보는 대상과 괴리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내용 역시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의 괴리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 따라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다.

② ㉒: 치사할 정도로 치근거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는 내 조금도 슬프지 않은 슬픔을 재주껏 과장해서 **순영의 동정심을 끌기에 노력했다. 그러나** 이런 던적스러운 청승이 결국 순영을 어찌할 수도 없었다.

- 나는 '청승'을 통해 순영의 동정심을 이끌려고 했으나 순영은 그런 청승에 어찌하지도 않았으므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③ ㉑: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루 종일 일에 매달렸다.

- 단순히 돈을 번다는 내용이 아니라 돈과 '자신의 고독'을 바꾸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고독'을 없앤다는 말과 동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⑤ ㉐: 주저하다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우선 점괘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점괘는 나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채 순전히 운에 의해 어떤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을 차용해서 바라본다면 송 선생이 이상과 같이 가기로 결정한 것을 '점괘를 쳐서 꽤에 나온 결과가 이상과 같이 있겠다.'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 2 4 5 1 2

43번

[정답 맞히기]

②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가)에서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를 보면 다시한번 붉게 피어 오르는 장작의 불빛(시각적 이미지)을 통해 불의 따스함이 만들어낸 실내의 아늑한 분위기를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나)에서 '티끌 부는 세상에도 별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 티끌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에서 '밝은 하늘 빛난 아침'을 통해, 밝고 환한 시각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밝은 앞날에 대한 화자의 경쾌한 기대감이 드러난다.

(다)에서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를 보면 이 별 편지를 받은 화자가 어느 겨울날 차가운 해질녘에 먼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들이 만들어내는 하늘 속 다양한 선들을 바라보다,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진 하늘의 어떤 선을 보게 되었고, 이를 끊어진 인연으로 이해하고 있다. '깨어진 금'에서 연상되는 시각 이미지를 통해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나)에서 '㉗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아.'를 통해 영탄적 표현이 드러나고 있으며 '산'을 반복하고 수식어가 늘어나면서 고조되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 (다)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 (가)에서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양다.'를 보면 표면에 드러나고 있지 않은 화자가 대상(노주인의 집)을 관찰하고 있다.

④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를 통해 생명감을 드러내고 있다.

- (나)에서 '티끌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발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㉔ 불이 고운 나의 사람.'를 보면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총총총 달려도 와 줄)를 통해 생명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 (다)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 (가)-(다) 작품 모두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지 않다.

44번

[정답 맞히기]

④ '책력도 없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바쁘게 살아가는 도회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나)에서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를 보면 '노주인'이 인동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는 공간이 '깊은 산 속'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달력'을 의미하는 '책력'은 '바쁘게 돌아가는 인간 세상'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이러한 '책력' 없이 깊은 산 속에 홀로 있는 '노주인'의 모습은 세속적인

일상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책력도 없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이 때의 ‘화자’는 글의 흐름 상 ‘노주인’을 의미한다.) 바쁘게 살아가는 도회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창작 시기와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시에서는 겨울로 비유된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정신적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아.
→ ‘인동차’의 ‘인동’은 ‘식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겨울을 참고 견디다’는 뜻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동차를 마신다’는 것은 차를 마신다는 의미와 함께 ‘시련의 시간을 견디어 낸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시가 창작된 시기가 일제 강점 후반기인 1940년대이기 때문에(<보기>참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참고하면, ‘인동차를 마시는 행위’는 ‘겨울로 비유된 힘든 시기인 일제강점기를 참고 견디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장벽에 / 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는 구절은 ‘차를 마신다’는 평범한 사실을 낱설게 바꾸어 표현한 것 같아.
→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를 보면 노주인이 차를 마시는 행위를 평범하고 익숙한 표현인 ‘차를 마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벽’, ‘무시로’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어를 활용해 ‘노주인의 내장 속으로 찬물이 흘러간다’라는 식으로 독특하게(혹은 ‘개성 있게’) 표현했기에, 시인이 평범한 사실을 낱설게 바꾸어 표현한 것이 드러난다.
- ③ ‘덩그럭 불이 / 도로 피어 붉고’라는 표현에서 실내의 분위기와 함께, 시간의 흐름을 엿볼 수 있어.
→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에서 ‘도로 피어 붉고’를 통해, ‘꺼져가던 장작이 다시 타오르는 방 안의 상황’을 알 수 있기에 시간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 ⑤ ‘하얗다’를 ‘하이얗다’라고 표현한 것은 언어 규범에 어긋나지만, 정감의 깊이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어
→ ‘삼동(三冬)이 하이얗다.’에서 ‘하이얗다’는 언어 규범에 어긋나는 표현으로, ‘하얗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하지만 ‘하얗다’라고 표현했을 때보다 ‘하이얗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눈 덮인 깊은 산속의 맑고 고요한 분위기가 더욱 잘 느껴진다. 따라서 이 시와 관련해, “‘하얗다’를 ‘하이얗다’라고 표현한 것은 언어 규범에 어긋나지만, 정감의 깊이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45번

[정답 맞히기]

- ⑤ ㉓는 화자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 줄 존재이고, ㉔는 화자의 방향을 유발하는 존재이다.
→ (나)에서 ‘향기로운 이슬 발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㉓불이 고운 나의 사람’에서 ‘불이 고운 나의 사람’은 해방 공간의 혼탁한 현실 속에서 슬픔을 느끼는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이므로, ㉓와 관련해 ‘㉓는 화자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 줄 존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다)에서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멀며 한없이 떠다니는’를 보면 화자로 하여금 이러한 방향의 마음을 지니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그대와 이별’이다. 따라서 ‘㉔그대’와 관련해 ‘화자의 방향을 유발하는 존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46번

[정답 맞히기]

- ① ㉠
→ (나)에서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아’를 보면 ‘산아’의 반복과 변형 그리고 ‘철철철’이라는 음성 상징어도 드러난다. 따라서 ㉠과 관련해, ‘자연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이를 통해 ‘화자’가 ‘자연’을 친숙한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어를 반복·변형했으며,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② ㉡
→ ‘㉡둥 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에서 ‘둥 둥’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어의 반복과 변형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
→ ‘㉢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엮드리면’에서는 시어의 반복과 변형이 드러나지만 음성 상징어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④ ㉣
→ ‘㉣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에서 ‘줄줄줄’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활용되었지만 시어의 반복과 변형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
→ ‘㉤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뺨꾸기는 우는데’에서 시어의 반복은 드러나지만 변형과 음성 상징어는 드러나지 않는다.

47번

[정답 맞히기]

- ② 냉소적 어조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 이 시는 이별의 편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대’를 그리워하며 아파하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냉소적 어조로, 즉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며 비웃는 말투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낸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작품 중간에 감정을 직접 드러낸 표현을 넣는다.
→ ‘사랑한다 사랑한다.’를 보면 이별에 아파하면서도 ‘그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여전히 화자가 지니고 있다. ‘사랑한다’는 이러한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말기에, 이와 관련해 ‘작품 중간에 감정을 직접 드러낸 표현이 사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마지막 행을 명사로 끝맺어 여운을 준다.
→ ‘몇 송이 눈.’ 마지막 행인 본 행이 ‘눈’이라는 명사로 끝남으로써, ‘몇 송이 눈이 내린다’라고 직접적으로 서술하여 표현하는 경우에 비해, 의미의 폭을 넓혀준다. 따라서 ‘마지막 행을 명사로 끝맺어 여운을 준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조사와 구두점을 적절히 생각한다.
→ '성긴 눈 날린다'를 보면 '눈이 날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눈 날린다'라고 표현했기에, '눈'이 '날린다'의 주체임을 알리는 '주격 조사'가 생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를 보면 서술어 역할을 하는 '받았다' 다음에 문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마침표가 찍히지 않고 생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절감을 주는 소재를 활용한다.
→ '성긴 눈 날린다'를 보면 겨울의 계절감을 주는 '눈'이라는 소재가 활용되고 있다.

2010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3 5 3 5

48번

[정답 맞히기]

③ 구어체 사투리를 구사하여 작품에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 나마나 어데서 술 처먹고 주질러앉았을 끼라."에서 '꼭 나오라 했는데', '뭐라 카는 기라', '밝히자 카는데', '읍에 가보이',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등을 통해 시골 사람인 이장의 사투리를 이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즉 구어체 사투리를 서술자가 직접 인용하여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구어체 사투리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 사투리가 사용되고 있는 현장의 느낌이 독자에게 직접적이고 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 글이 구어체 사투리를 구사하여 작품에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인물들의 행위를 과장하여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 인물의 행위가 과장되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극적인 반전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곶기 대회'에서 황만근이 실종된 사건을 전후로 일어난 마을 회의의 내용만 드러나고 극적인 반전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④ 섬세한 인물 묘사를 통해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인물간의 대화를 통해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섬세한 인물 묘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⑤ 장면 변화에 따라 서술 시점을 달리 해 입체감을 주고 있다.
→ '스테인리스 물잔이 두어 개밖에 없어서 ~. 민씨에게는 좀 빠른 듯했지만.'을 보면 술을 잘 마시기에 어서 자기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는 황만근의 마음과 술을 잘 못 마시기에 술잔이 도는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는 민씨의 마음이 드러난다. 소설 속 인물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게끔 서술이 되어 있으므로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의 시점 또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따라서 장면 변화에 따른 서술 시점은 달라지고 있지 않다.

49번

[정답 맞히기]

⑤ ㉔ : '이장'은 경제적 지위를 앞세워 자신의 열세를 만회하려 하고 있다.
→ "㉔도시에서 쫓딱 망해가고 귀농을 했시모 암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키줄까 말까 한데."를 보면 민씨의 논리 정연한 말에 할 말이 없어진 이장은 논리적인 대화가 아닌 민씨가 마을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대화의 내용과는 무관한 사실을 들어 민씨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㉑ : '이장'은 방침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㉑강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방침이 그렇다카이."를 보면 이장은 투쟁 방침 핑계를 대며, 황만근의 실종 사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② ㉒ : '민씨'는 상식적인 이치를 들어 '이장'의 잘못을 따지고 있다.
→ "㉒이장님부터 술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를 보면 민씨는 대표자가 술선수범하여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이치를 들어 혼자만 편하게 곶기대회에 참석하고 온 이장의 잘못을 따지고 있다.

③ ㉓ : '이장'은 당시의 상황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있다.
→ "㉓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올메나 바쁜 사람인데 강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를 보면 이장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았다는 당시 상황을 핑계로 자신이 편하게 트럭을 타고 간 행동을 변호하고 있다.

④ ㉔ : '민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이장'의 태도에 분노해서 흥분하고 있다.
→ "㉔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를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뻔뻔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아닌 이장인데, 그러한 이장이 오히려 자신에게 '모자라다'며 무시를 하려 드니까 민씨는 이러한 이장의 태도에 분노해서 흥분하고 있다.

50번

[정답 맞히기]

③ ㉔와 ㉕를 통해 ㉖의 정황을 알 수 있다.
→ 황만근이 경운기를 타고 농민곶기대회에 나갔다가 실종된 ㉖를 ㉔와 ㉕의 회의를 통해 알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① ㉖는 시간상으로 ㉔와 ㉕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 ㉖는 ㉕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② ㉔와 ㉕에 드러나는 회의 분위기는 동일하다.
→ ㉔에는 민씨와 이장이 갈등하는 분위기이지만 ㉕는 그렇지 않다.

④ ㉔에 요약된 내용이 ㉔와 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㉔에서 황만근이 술을 좋아한다는 사실 정도만 알 수 있다.

⑤ ㉕를 개최한 이유는 ㉔에서 해결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 시간상으로 ㉔보다 ㉕가 먼저이다.

[정답 맞히기]

㉔ 황만근의 희생으로 마을 사람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마을 사람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㉑ 마을 사람들에게 반편이로 취급받던 황만근이 농민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마을 사람들에게 반편이 취급을 받는 황만근이지만 <보기> 에서 “농사꾼은 빛을 지마 안된다 카이” 라고 말한 황만근의 발언을 통해 황만근이 농민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㉒ 힘겨운 농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영농 정책이 없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농가부채 탕감 촉구 전국농민 총궐기대회를 참여하려는 농민들의 모습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㉓ 원칙을 지키다 죽은 황만근의 모습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구요” 라고 말하는 민씨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㉔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계를 사느라 빚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실상을 그리고 있다.

→ ‘스스로 진 빚도 문제였지만 ~ 동네 전체가 야반도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를 보면 농민들이 빚 때문에 소송에 시달리고 동네 전체가 야반도주까지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빚에 시달려 힘겹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